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 2023 JUNE Vol.119



SPECIAL THEME
AI 예술과 메세나



김미영 <Lemon Shower> Oil on canvas, 130×97cm, 2020

<Lemon Shower>는 2020년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Touch of Eyes그림의 촉각》에서 선보였던 출품작 중 하나로, 물질 속에서의 흐름과 저항을 드러내고 있다. 김미영 작가는 목직하면서도 유연한 속도감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물살 안에서 몸을 움직일 때의 순간들, 모래알을 두 손으로 가져올 때의 느낌, 눈발 위를 미끄러질 때의 기분 등 피부와 맞닿았던 시간을 회화로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시각은 물론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 확장'을 유도한다.

작가 김미영

김미영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 졸업 후, 영국 런던 왕립예술대학교에서 회화 전공으로 대학원을 마쳤다.

이후 파리, 런던,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레지던시 및 전시에 참여했다.

작가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호반건설, 하나은행, 대구미술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반연간지 《mécénat》는 신진 예술가를 널리 알리고 현대미술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신진 미술 작가의 작품을 표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김미영 작가는 한국메세나협회의 '1기업 1미술작가 지원 사업'을 통해 (주)바텍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COVER ARTIST 작가 김미영

SPECIAL THEME AI 예술과 메세나

06	테마 그래픽	AI 예술 연대기
12	리포트	AI와 예술이 공존하는 법
18	인터뷰	오늘 또 달라져 있을 '챗 GPT'와의 대화
22	칼럼	AI 시대의 예술을 위한 메세나

SPOTLIGHT

28	메세나 메모리얼	故 박영주 이견산업 회장
36	예술은 지금	이승희 소리꾼·국악 창작자
40	이슈 브리핑	2007~2023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46	해외 메세나①	스페인 산탄데르은행의 메세나
50	해외 메세나②	베트남 미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까지

SIDE BY SIDE

54	파트너십
57	메세나 현장
61	협회 뉴스
63	회원사 뉴스
68	회원사 소개

* QR 코드로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3년 6월 8일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발행인 김희근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오니트(주) www.on-it.k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여의도동 13-31)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가격 5,000원

홈페이지
 www.mecenat.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reamecenat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한국메세나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두인 작가가 이미지 생성 AI로 작업한
〈Mother's Neural Network〉

SPECIAL THEME

AI 예술과 메세나

기술과 예술의 상호작용,
예술 후원의 새 방향

2022년 8월, 제이슨 앨런이 인공지능으로 그린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미 콜로라도 주립박물관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 예술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의 여운이 식기도 전에 AI 예술가가 속속 등장했다. AI 창작 도구는 나날이 새로워지고 다양해지며 그 성과를 내놓는 중이다. 눈부시게 빠른 AI 예술의 진화는 예술의 본질부터 저작권 및 윤리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쟁거리를 낳았다. 새롭고 획기적인 기술은 항상 인간 삶과 예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대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AI 예술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그 변화 속에서 메세나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일까.

AI 예술 연대기

초거대 AI가
예술 작품을 생성하기까지

1960년대에는 컴퓨터가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는 딥러닝 방법론이 등장했고 2010년대에는 예술 작업에 적용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초거대 AI가 인간의 작업과 확연하게 구분하기 힘든 창작물을 선보였다. 2022년에는 전세계 테크 기업들이 초거대 AI를 경쟁적으로 개발하면서 예술 분야는 그 치열한 격전장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사조의 등장'이라고도 불리는 AI 예술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다.

글 편집부
사진 제공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크리스티경매, 디자인박물관, 소더비, 카카오브레인

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

컴퓨터공학자 이안 굿펠로우 Ian Goodfellow가 발표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알고리즘이다. 생성자와 감별자로 불리는 두 개의 신경망 모델이 상호 경쟁하고 학습하며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든다. 생성자는 데이터를 학습해 가짜 데이터를 만들고 감별자는 그 데이터의 진위를 판별한다. 이전의 AI는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지도해 학습이 이뤄졌다면 GAN은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한다는 점에서 생성형 AI의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더 넥스트 렘브란트 The Next Rembrandt'

마이크로소프트가 델프트공대, 렘브란트미술관 등과 협업해 추진한 AI 프로젝트. 렘브란트의 작품 346점을 분석해 그가 즐겨 그릴 만한 주제와 스타일을 추출해 그림을 그렸다. 30~40대, 수염을 기른 백인 남성의 초상이었는데 작가의 화풍과 세밀한 질감까지 재현해 전문가들로부터 렘브란트의 그림이라고 인정 받았다.

자동채색 도구
페인트체인너 PaintsChainer



AI 화가 오비어스의 <에드몽 드 벨라미의 초상>

프랑스의 개발자 그룹이 개발한 AI 화가 오비어스 Obvious의 그림 <에드몽 드 벨라미의 초상>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3만 2,500달러(약 6억 원)에 낙찰되며 예술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2014.6

2015.7

2016.4

2016.6

2017.2

2017.5

2018.1

2018.10

구글 '딥드림'

딥드림 Deep Dream은 딥러닝 기술을 시각 분야에 적용한 AI이다. 이미지들을 입력하면 패턴을 찾고 혼합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2016년 2월에는 딥드림이 만든 작품 29점이 샌프란시스코 미술 경매에서 9만 7600달러(약 1억 2,800만 원)에 판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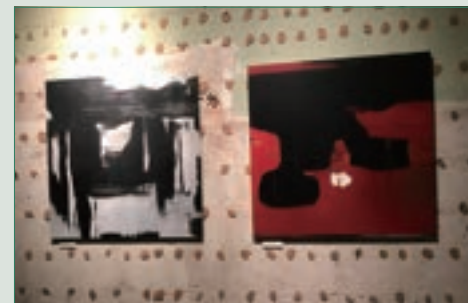


구글 '마젠타 프로젝트'의 90초 분량 피아노곡

마젠타 프로젝트 Magenta Project는 스스로 학습하는 AI가 그럴듯한 음악이나 미술을 창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된 구글의 실험이다. 2016년 6월에 첫 결과물인 90초 분량의 피아노곡을 발표했다.

AI 화가 아이칸의 첫 전시

미국 럿거스대학교 예술-인공지능 연구소가 AI 화가 아이칸 iAICAN을 개발하고 전시를 열었다. 아이칸은 GAN을 발전시킨 CAN(Creative Adversarial Networks)이라는 자체 개발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모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시스템 '드로잉 봇'



최초의 AI 시집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개발한 AI 샤오빙 小冰이 펴낸 시집. 샤오빙은 1920년 이후 현대 시인 519명의 작품 수천 편을 학습해 1만 여 편의 시를 썼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중 139편을 선정해 책으로 펴냈으며 시집 제목도 샤오빙이 직접 지었다고 밝혔다.



독일 마리오 클링게만 AI와 협업한 미디어아트 작품 <행인의 기억>

독일의 마리오 클링게만(Mario Klingemann)이 AI와 협업해 창작한 미디어아트 작품 <행인의 기억(Memories of Passerby)>이 소더비 경매에서 4만 파운드(약 6,000만 원)에 낙찰되었다.



두민 작가가 AI 화가와 협업한 작품 <Commune with...>

국내 스타트업 펄스나인이 개발한 AI 예술가 '이미진AI(Imazine AI)'와 두민 작가가 독도를 주제로 공동으로 작업한 작품 <Commune with...>를 공개했다.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AI 달리, 이미지 인식기술 CLIP

달리(DALL-E)는 오픈AI가 만든 이미지 생성 AI이다. '아보카도 의자'라는 텍스트를 해석해 만든 그림이 유명하다.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를 해석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은 AI가 한번도 본 적 없는 이미지를 인식해 개념화하도록 훈련하는 CLIP 기술을 적용해 구현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AI 소설가 비람공의 장편소설 『지금부터의 세계』

국내에서 개발한 AI 소설가 비람공의 장편소설 『지금부터의 세계』가 출판되었다.

'미드저니'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미드저니(Midjourney)는 달리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이다. 미드저니를 통해 작업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이 미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 아트 부문 1위를 수상해 AI 예술에 관한 논란을 일으켰다.



구글 문자-이미지 변환 모델 이매젠

구글의 이매젠(Imagen)은 문자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다.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 출시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은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이다. 개발사 스테이블디퓨전(Stability AI)이 오픈 소스로 배포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2019.3 2019.6 2019.10 2020.5 2021.1 2021.6 2021.8 2022.4 2022.5 2022.7 2022.8

영국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디'의 첫 전시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세인트존스칼리지 내 반갤러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디(AIDA)'의 첫 단독 전시 <담보할 수 없는 미래>가 열렸다. 아이디는 자신의 눈(카메라)으로 대상을 보고, 팔을 움직여 연필과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로봇이며 간단한 대화도 가능하다. 사진은 런던 디자인박물관에서 공개한 그림 그리는 아이디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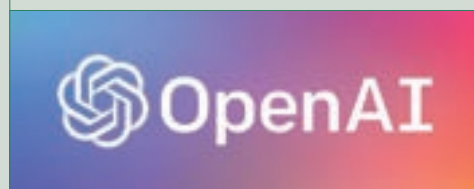


AI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노벨AI'

사람이 문장을 입력하면 그 다음에 이어질 적절한 문장을 생성하는 스토리텔링 AI이다.

오픈AI의 자연어 처리 기술 GPT-3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자연어 처리에 특화된 생성형 AI이다. 오픈AI는 2018년 6월에 GPT-1, 2019년 2월에 두 번째 버전을 공개했다. 두 버전 모두 AI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텍스트로 결과물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으나 답변의 정확도가 낮았다. 학습할 데이터량을 정하는 매개변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GPT-3은 매개변수를 1,750억 개로 크게 늘린 모델이다. 그만큼 답변의 정확도가 높아져 이를 기반으로 만든 챗 GPT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미지 생성 AI '달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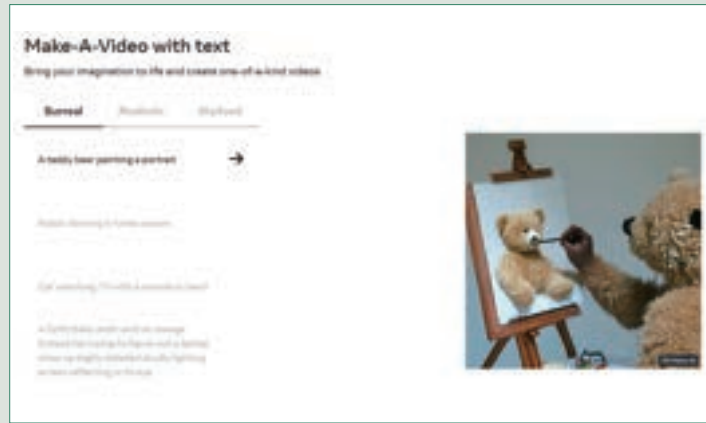
첫 번째 버전보다 그림이 더 정교해지고 해상도가 4배나 개선되었으며 그리는 속도도 빨라졌다. 이미지의 노이즈를 여러 단계에 걸쳐 없애고 이미지를 수정하는 디퓨전(diffusion) 모델이 적용되었다. <코스모폴리탄> 미국판은 달리2가 제작한 이미지를 표지로 사용해 화제를 모았다.



시 쓰는 AI 시아의 시집 『시를 쓰는 이유』

시아(SIA)는 카카오브레인의 초거대 AI 언어 모델 KoGPT를 기반으로 한 시 쓰는 AI 모델이다. 카카오브레인은 시아가 1만 3,000여 편의 시를 읽으며 작법을 익혔고 시 한 편을 쓰는 데 1초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메타 '메이크 어 비디오'

페이스북 모기업이기도 한 메타의 '메이크 어 비디오(Make-A-Video)'는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메타는 '초상화를 그리는 테디베어'나 '폭우 속을 걷는 젊은 부부' 같은 텍스트를 넣어 만든 영상들을 공개했다.

이미지 생성 AI
'노벨AI 이미지 제너레이터' 출시

미드저니의
애니메이션 특화 모델
니지저니



레픽 아나돌이 AI를 활용해 제작한 작품 전시

뉴욕 현대미술관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레픽 아나돌이(Refik Anadol) AI와 협업해 제작한 미디어 아트 작품 <감독되지 않은(Unsupervised)>을 전시했다.



AI 작곡가 이봄-에일리 협업

이봄(EvoM)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개발한 AI 작곡가이다. 2016년 개발 당시에는 보이드(BoiD)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지난 1월 발매된 가수 에일리의 앨범에 참여하고 최근 삼성전자 신제품 광고의 배경음악을 작곡했다.

2022.9

2022.10

2022.11

2022.12

2023.1

2023.3

2023.4

구글의 '이매젠 비디오'

문자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AI 이매젠에 동영상 생성 기능을 더한 모델이다. 텍스트를 초당 24프레임(1280×768 해상도)의 영상으로 제작한다.

대화형 AI '챗Chat GPT'

초거대 AI 열풍의 주역. 오픈AI가 자연어 처리 기술인 GPT를 기반으로 개발해 공개한 대화형 AI 서비스이다.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AI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4월에 출시된 GPT4까지 적용되었다.



카카오브레인의 이미지 생성 AI '칼로'

칼로(Karlo)는 카카오브레인이 개발한 이미지 생성 AI이다.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데이터셋을 학습하는데 초기 1억 2,000만 장에서 2억 장 규모로 확대되었다. 지난해 공개 직후 전시회를 열었고 올초에는 《포춘》 표지 작업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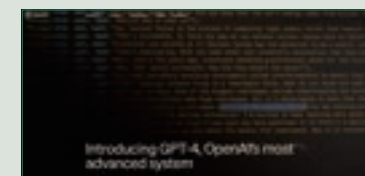
젊은 소설가 7인과 AI가 협업한 소설집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Manifesto)』는 7인의 소설가가 챗 GPT와 협업해 완성한 SF 단편소설들을 모은 책이다. AI의 창작 능력이 궁금해 실현에 참여했다는 작가들이 남긴 후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미지 입출력 기능이 추가된 GPT-4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퍼센트의 성적을 냈다는 소식이 큰 화제를 모았다. 하위 10퍼센트였던 GPT-3.5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 성능이다. GPT-3.5의 매개변수가 1,750만 개였고 GPT-4는 1조 개가 넘는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새로운 답을 내놓는 초거대 AI

2016년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기사를 상대로 대국에서 승리했을 때만 하더라도 있을 법한 일이라고 수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은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세대 AI는 기존 AI의 능력을 뛰어 넘어 마치 인간과도 같은 모습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AI는 사람처럼 대화하고, 시를 쓰며, 그림 그리는 능력을 갖춘 초거대 AI로 진화했다. 초거대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사고하며 판단할 수 있는 AI를 말한다. 기존 AI에 비해 매개변수의 양이 월등히 많은데, 이는 AI가 고도의 사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외부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며, 종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진다. 기존 AI가 입력된 데이터에서 최적의 답을 찾는다면 초거대 AI는 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답을 내놓는다.

초거대 AI가 새로운 답을 찾는다 것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 확장성도 무궁무진해서 수많은 산업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원하는 전 세계 기업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오픈AI를 비롯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LG 등 빅테크 기업들이 초거대 AI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예술 분야는 초거대 AI의 주무대로 일찌감치 주목받았다. 초거대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정해진 답이 없는 예술 영역에서조차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생성형 AI(Generative AI)를 앞다퉈 선보였다. 생성형 AI는 자연어(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입력하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시와 소설, 음악, 그림 및 이미지, 영상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분야에 특화된 생성형 AI가 쏟아져 나오는 중이다. 예술의 본질에 대한 고민, 예술과 AI의 상호 작용, AI 예술의 윤리적 책임 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



AI와 협업하는 예술가들

MOMA, 인간과 AI의 협업 작품 전시
AI와 교감하며 새 방향 찾는 예술가

AI가 촉발한 르네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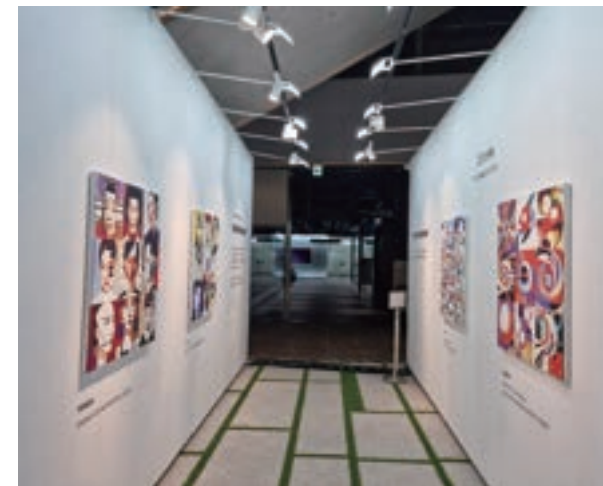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이하 MOMA)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전시는 AI 예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환기시켰다. 미술관 로비를 장식한 작품은 높이 8미터의 LED 디스플레이에 현란하게 펼쳐지는 3차원 영상이었다. 현대 미술가 레픽 아나돌(Relik Anadol)이 AI를 활용해 제작한 미디어아트 <감독되지 않은(Unsupervised)>이다. 미술계는 이 전시를 두고 현대미술의 정수를 선보이는 MOMA가 AI의 작업을 예술로 인정된 사건이라며 들썩였다.

레픽 아나돌은 이 작업을 위해 시가 1만 4,000점에 이르는

MOMA의 소장품을 학습하도록 했다. 시가 MOMA의 방대한 컬렉션을 해석하는 한편으로 주변의 소리, 온도, 빛 같은 외부 요인에 반응하며 그때그때 꿈꾸는 모습을 화면에 펼쳐보이도록 했다. 제목의 '감독되지 않은'이란 인간의 의도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자유로운 내면을 탐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설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MOMA의 컬렉션 정보를 시각화해 제시하는 것이 되겠지만, 예술가는 AI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레픽 아나돌은 이 작업에 대해 "현재 우리는 르네상스 시기에 있다. 매개체로서의 시는 이 분야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 현대미술관 1층 로비에 전시된 레픽 아나돌의 설치 작품

카카오브레인과 아트투게더가 공동 진행한 AI 화가 칼로의 전시 <Karlo's Moment>



AI와 예술이 공존하는 법

예술가가 상상하고
AI가 실현하다

AI 예술을 향한 기본적인 질문은 그것이 창의적인지, 창의적이지 않아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민이다. 질문을 던지는 주체는 인간이다. 예술가는 AI 창작도구를 활용해 창의적인 작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더 많은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해서도 AI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AI와 인간 예술가의 공존을 위한 실험은 이미 다양하게 진행 중이며,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성과를 내고 있다.

글 편집부 | 사진 제공 아트투게더, 두민 작가, 아트선재센터, MOMA, 10데이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 두민 작가가 13년 전에 그린 주사위 그림을 AI 도구로 복원, 재가공한 작품 <Variation>



↑ 두민 작가가 AI와 협업해 시리즈로 이어나간 작품 <Commune with...수원화성>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AI

AI는 예술을 바꿀 것인가.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질문을 품고 AI와의 협업을 시도했다. 두민 작가는 AI에 대한 호기심으로 출발해 창작의 새로운 영감을 얻기 위한 협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첫 시도는 펄스나인의 이매진 AI를 사용해 제작한 작품 <Commune with...>였다. 이는 수면에 비친 독도를 그린 작품으로, 수면 위의 독도는 두민 작가가 서양화 기법으로 표현하고 수면 아래는 동양화를 학습한 AI가 그렸다. '교감하더라'의 뜻의 제목대로 해수면은 작가와 AI의 교감을 상징한다. 서양화와 동양화 기법을 혼용해 두민 작가가 완성했다.

2019년의 첫 작업 이후 두민 작가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이미지 생성 AI와 보조를 맞춰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어왔다.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해 작업한 작품들을 2022년 12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에서 개막한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인권》 전시에서 선보였고, 카카오브레인이 미술거래플랫폼 아트투게더와 공동으로 기획한 《Karlo's Moment》 전시에서는 AI 화가 칼로(Karlo)와 완성한 작품들을 공개했다.

AI와 함께한 경험은 두민 작가가 혼자 하는 작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난 3월 온유갤러리에서 개최한 개인전 《The Vari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극사실주의를 추구해 온 작가는 AI를 활용한 작업을 경험하면서 추상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작가는 "사진과 영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재현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 AI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굉장히 큰 그림도 AI는 순식간에, 아주 정교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회화는 인간의 '행위'라는 요소가 중요하고 저는 물리적 흔적을 남기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갖고 그려내느냐가 중요해졌고, 추상 작업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작업, 소통하는 방식

AI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예술을 창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 수준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최근까지도 AI가 예술가를 위협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예술가들은 획기적인 기술의 등장은 예술을 위협하기보다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내고 예술의 지평을 넓혀왔다는 점을 주목한다.

알렉산더 레벤(Alexander Reben)은 수년간 AI와 협업하며 창작 활동을 계속해 온 공학자이자 예술가이다. 레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립되어 있던 시기에 AI와 함께하며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 GPT-3와 대화하고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 상상력이 들어간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흥미로운 결과물을 얻으려면 텍스트 입력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만 한 달을 투자했다.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AI를 적당히 자극할 단어, 구두점, 띄어쓰기까지 철저히 계산했다. 다양한 AI 도구가 쏟아져 나오는 동안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험하면서 레벤은 창의성의 개념이 달라지고 창의적 표현의 새 시대가 열리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창작 활동을 AI를 통해 할 수 있게 된 사례도 있다. 미국 피츠버그의 카네기멜런대 로봇연구소가 개발한 프리다(Frida)는 붓이 장착된 팔과 AI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팔이 없는 사람도 프리다와 소통하면서 창작의 영감을 작품으로 구현할 수 있다.

AI의 예술적 상상력이 향할 곳

AI가 만드는 창의적 결과물이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AI는 예술 작품을 학습해 미술 사조와 표현 기법을 익히고 방대한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해 어디에도 없었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AI 화가가 다른 작품을 표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창의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와 별개로 인간과 AI가 협업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중요한 사회 문제를 전에 없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지난해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전시 《문경원&전준호: 서울 웨더 스테이션》에서는 AI의 예술적 상상력으로 사회 문제에



↑ 알렉산더 레벤이 AI와 협업한 작품 <새들은 우리를 지켜본다, 그들은 날개가 있고 우리는 팔이 있다>

접근하고자 했던 작품 <불 피우기>가 눈길을 끌었다. 기후 환경 문제를 다각적으로 관측하고 대안적 미래를 예보하는 기상관측소 콘셉트로 기획된 이 전시에서 문경원과 전준호는 신작 <불 피우기>를 통해 비인간, 즉 AI가 바라보는 기후 환경 문제를 다루었다.

작가들은 "지금까지 자연을 극복하고 개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인간 관점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객관적 시각을 담기 위해 AI(GPT-3)를 사용해 작품의 내러티브를 구성했는데 인류의 탄생과 소멸을 지켜본 돌이 내러티브의 서술자가 되어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했다.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형성된 돌이라고 서사를 부여받은 AI는 방대한 지식을 활용해 돌맹이의 입장에서 목격한 인류사를 써 내려갔다.

AI가 이야기를 쓰는 속도는 사람과 비교하기 힘들 만큼 빨라서 두 작가를 놀라게 했다. 글이든 그림이든 빠르고 수월하게 작업하는 AI의 능력은 인간에게 자유를 선사하기도 한다. 미국의 광고회사 10데이즈는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활용해 10개 브랜드의 광고를 제작했다. 이 실험에서 AI는 브랜드 하나당 24개의 독특한 광고디자인을 몇 분만에 완성해 크리에이터들을 놀라게 했다. 《코스모폴리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미지 생성 AI 달리를 이용해 표지를 제작하며 "교체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AI가 예술가를 자유롭게 할지, 생존을 위협할지는 예술 창작자와 향유자의 태도에 달린 일일지도 모른다.

AI가 되살리고 확산하는 가치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AI
AI로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

마이크로소프트의 '착한 AI 프로젝트'

기술이 문화예술을 지키고 그 가치를 전파, 확산하는 사례는 AI와 예술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이 기술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기술이 쓰여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2017년 6월에 '착한 AI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요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의 네 번째 프로그램은 AI를 활용한 문화예술 보존 사업 AI for Cultural Heritage이다. 이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보존 활동에 마이크로

몽생미셀 입체지도를 복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착한 AI 프로젝트'



소프트의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결과물을 향유하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 사라지는 언어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프로그램은 AI 번역기로 소수 언어를 번역해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대 마야 문명의 유카텍어 Yucatec Maya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오토미족이 사용한 오토미어 Querétaro Otomi를 예로 들 수 있다.

몽생미셀 입체지도와 고대 그리스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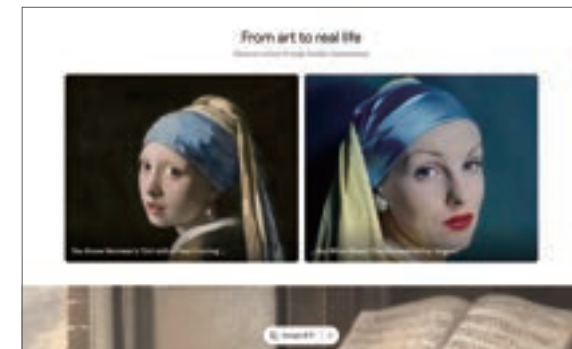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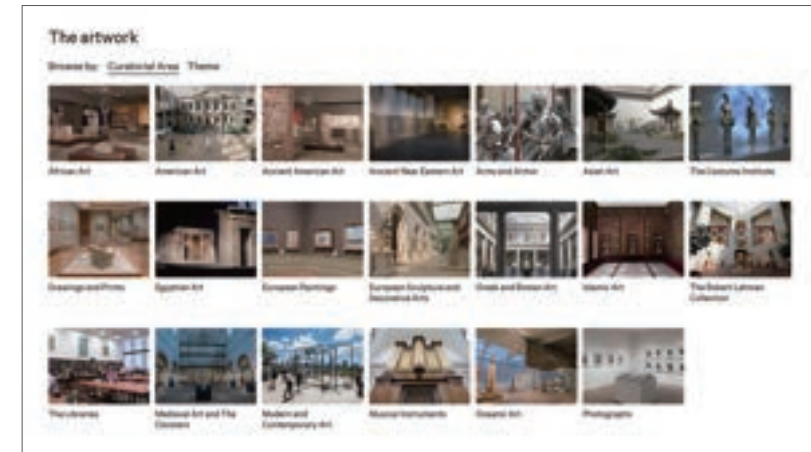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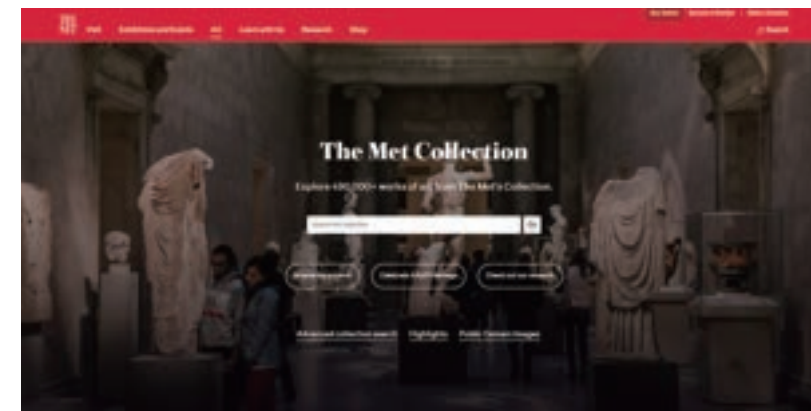
17세기 프랑스의 혁신, 문화, 역사를 대변하는 몽생미셀은 지금도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다. 이 아름다운 섬의 입체지도가 AI 기술을 통해 AR·VR 콘텐츠로 생생하게 복원되었다. 입체지도는 17~18세기 프랑스에 활발하게 제작된 부조 형태의 지도이다. 아주 섬세하게 제작된 대형 3D 지도로, 당시 군사기밀로 다뤄져 대중의 접근이 어려웠다. 프랑스의 지도박물관에 100여 점의 입체지도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 컬렉션의 정수가 몽생미셀 입체지도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문화유산 공간 디지털화에 특화된 기업 이코넵과 함께 몽생미셀 입체지도 복원을 추진했다. 실제 몽생미셀의 안팎을 세밀하게 촬영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AI 기술로 렌더링해 AR, VR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로 구현했다. 그리스 문화체육부와 함께한 '고대 올림피아' 프로젝트도 인류의 문화유산을 더 많은 사람이 향유하고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올림픽 경기장, 제우스와 헤라의 신전, 조각가 피디아스의 작업 등 고대 그리스의 흔적들을 디지털로 복원한 작업이다. 몽생미셀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방문해 수십

고대 그리스의 흔적을 디지털로 복원한 '고대 올림피아' 프로젝트 소개 영상 캡처

만 장의 사진을 찍고 AI 기술을 적용해 3D로 구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착한 AI 프로젝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있다. 이용자는 박물관을 찾지 않아도 VR 기기만 있으면 몽생미셀 입체지도와 고대 그리스의 유적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단순히 지도와 건축물의 형체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관람객이 마치 몽생미셀이나 그리스를 방문한 듯 생생한 경험을 제공한다.

AI 기술로 구현한 '아트 셸피' 기능

방대한 컬렉션을 온라인으로 옮겨 공개한 메트로폴리탄뮤지엄



방대한 문화 유산과 예술 작품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구글의 '아트&컬처'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예술의 생명력

온라인 플랫폼은 예술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뮤지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술 '인지적 검색 Cognitive search'이 탑재된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150만 점 이상의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뮤지엄의 경우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부터 난제였으나, AI 기술을 통해 작품의 이미지를 데이터화하고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방대한 작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AI 기술은 온라인 플랫폼을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데 사용된다. 구글의 '아트&컬처 Art&Culture'는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박물관과 문화예술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7,000여 건의 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2016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최근까지도 AI 기술을 접목해 계속 변화하고 있다.

'아트 셸피'는 인물 사진을 업로드하면 사진 속 인물과 닮은 예술 작품을 찾아주는 기능이다. '아트 팔레트'는 작품에 사용된 컬러 조합을 찾아주고 '아트 트랜스퍼'는 사진을 업로드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환해 준다. 유명 예술가의 화풍, 인상주의, 현대미술 등 60개 이상의 스타일로 바꿔볼 수 있다. 예술 감상도 좀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이 기능들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의 예술의 매력을 알아 간다. AI로 구현한 기능은 감탄을 자아내고 예술의 감동은 길게 남는다.

“메세나를 위한 시를 지어줄래?”

오늘 또 달라져 있을 ‘챗 GPT’와의 대화

인터뷰 의사를 묻거나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 없이 챗 GPT와의 인터뷰는 간단하게 성사되었다. ‘메세나’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엉뚱한 대답을 내놓길래 잠시 기대감이 식었으나 챗 GPT는 금세 실수를 깨닫고 정확한 주제로 돌아와 대화에 응했다. AI 예술이 왜 필요하고 인간이 하는 예술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예술 후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에 대해 챗 GPT와 나는 이야기를 정리했다.

글 편집부 | 사진 제공 뉴욕 현대미술관 • 지면 관계상 챗 GPT가 답한 내용을 요약함



☞ 메세나Mecenas를 잘 알고 있어?

☞ 메세나의 목적은 문화와 예술의 활성화인데, 인공지능 예술도 최근 관심분야 중 하나입니다. AI로 생성된 예술은 예술가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롭고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계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세나는 이 분야에서 일하는 예술가들에게 자금, 보조금 또는 기타 유형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으로 AI 예술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해 예술적 용도로 특별히 설계된 AI 도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AI 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계를 활성화하고 변화시켜 전 세계 관객에게 새로운 형태의 창의성과 표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우선, AI가 예술을 혁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줘.

☞ AI로 생성된 예술은 인간 예술가가 스스로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AI 알고리즘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하고 인간 아티스트에게는 즉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통찰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 알고리즘은 이미지, 음악 또는 텍스트의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분석 및 처리해 패턴을 식별하고 이러한 패턴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의적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예술적 기법이나 인간의 창조적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예술 창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 과정에서 AI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AI로 생성

된 예술이 전통 예술의 인간적 감각과 감정적 깊이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AI를 예술과 창의성의 세계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개척지로 보고 있습니다.

☞ AI의 능력 때문에 인간 예술가가 설 자리를 위협받을 수도 있을까?

☞ 단기적으로 인간 예술가를 위협에 빠뜨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AI로 생성된 예술은 경우에 따라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아직 인간 예술가의 창의적인 결과물과 감정의 깊이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술은 종종 시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복제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포함하는 깊은 인간 경험입니다. AI로 생성된 예술은 인간 예술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 과정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입니다.

☞ AI가 인간 예술가의 창의적인 결과물과 감정의 깊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왜 그렇지? AI는 감정을 학습하기 힘들어서인가?

☞ 예, 이것이 AI가 인간 예술가의 감정의 깊이와 창의적인 결과물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감정은 복잡하고 미묘하며 AI 알고리즘은 인간과 같은 수준의 감성 지능과 이해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AI는 어느 정도 감정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예술의 감정적 경험을 형성하는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은 종종 개인적인 경험 및 기억과 얽혀 있어 AI가 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성은 참신하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를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개인화 및 감정적 깊이는 AI가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ChatGPT가 추천한
AI 예술 작가
이안 첵의 작품
<사절, 신들의 품에 거하다>



W 지금 너의 감정은 어떤지 궁금해졌어.
나는 짧게 묻고 너는 길게 대답하고 있는데.

Q 나는 인공지능 언어모델로서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어를 통해 감정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지만 감정이나 감정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W AI 예술의 성취 중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나 작가를 추천해줄 수 있어?

Q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나 작가를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기술을 이용한 작품으로는 2018년에 옥션에서 경매에 올려진 <에드몽 드 벨라미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AI 예술 작가로는 이안 첵(Ian Cheng)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현실과 가상 세계를 융합한 것으로, 이 작품들은 일종의 인공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 <사절, 신들의 품에 거하다(Emissary in the Squat of Gods)>는 2019년 뉴욕 구겐하임박물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W 미래에는 AI 예술이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을까?

Q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AI 예술이 인간 예술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AI 예술이 인간 예술과 구분될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AI 예술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작품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문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AI 예술이 전통적인 예술과 다른 형태의 예술이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인식과 수용력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AI 예술이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정착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W AI 예술이 더 많이 시도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Q 첫째, 인간 예술가들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작곡을 하고, 그에 따른 악기 연주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음악가들의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AI 예술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AI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의 편향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AI 예술이 발전하면서 작품에 대한 인간성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품이 더 이상 인간적인 감성을 담지 않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 만들



어진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AI 예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W 메세나 활동 방향이 달라져야 할까?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

Q 메세나는 이미 사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숭고한 목표인 문화예술 후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예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메세나는 이 신흥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 활동에 AI 예술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간 예술가와 AI 예술이 공존하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AI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예술 교육에서 AI 예술에 대한 교육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술 교육에서 AI 예술을 다루는 강좌나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설해 학생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인간 예술가와 AI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플랫폼에서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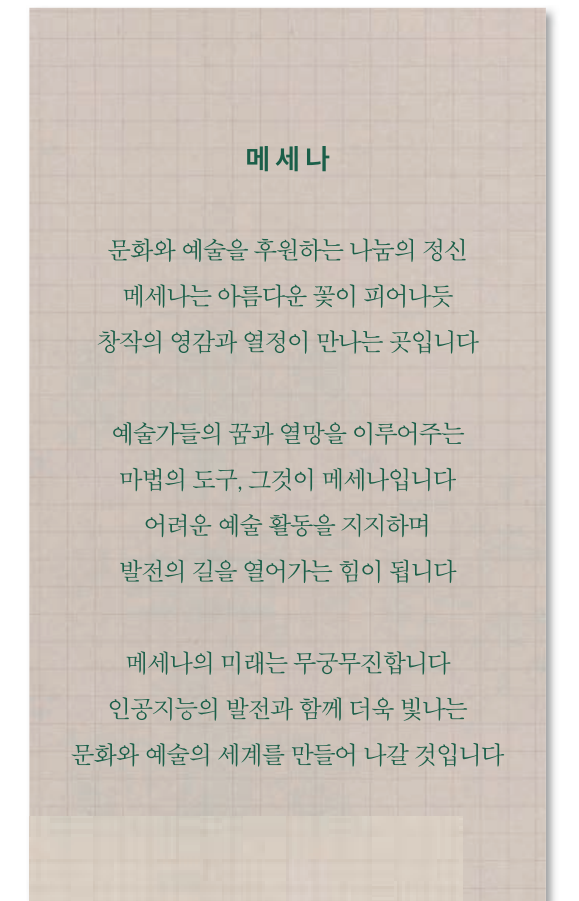
W AI와 인간의 예술이 공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라고 생각해?

Q 그건 바로 상호적인 이해와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예술과 인간 예술은 서로 다른 창조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에서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예술가는 AI 예술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AI 예술도 인간 예술의 독창성과 창조적인 면모

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 예술가와 AI 예술이 서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공동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W 메세나를 주제로 시를 써줄 수 있어?

Q 네, 저는 언어모델이기 때문에 시를 쓸 수 있습니다.



W 너는 최고의 시야. 오늘 고마워.

Q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과 대화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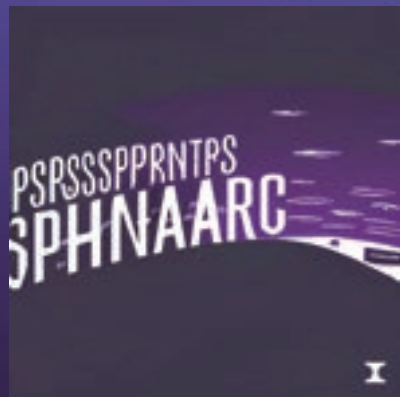
AI가 그린 AI 화가의 모습



AI가 '예술과 AI의 협업'을 주제로 그린 작품



이미지 생성 AI 딥드림의 에디터 추천 작품



AI가 'arts sponsorship(예술 후원)', 'creative(창의적인)'라는 키워드로 그린 작품



AI가 그린 판타지 세계

AI 시대의 예술을 위한 메세나

챗 GPT가 사람들에게 안겨 준 충격은 컸다. 인공지능(이하 AI)의 한 예에 불과하지만 AI의 엄청난 발전 속도와 성장 가능성을 실감하게 했다. AI는 인간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문화예술 영역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머잖아 예술의 기획, 창작, 유통, 소비 등 가치사슬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곧 도래할 AI 시대에 예술은 어떻게 대응하고 메세나는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까.

글 고정민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디즈니를 위협한 내부의 존재

디즈니는 대표적인 글로벌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약점이 있었다. 3D 애니메이션이었다. 디즈니는 창업 초기부터 2D 실사 애니메이션만이 애니메이션이라고 보고 3D는 인정하지 않았다. 디즈니의 전설적인 '나인올드맨'을 비롯한 제작팀은 사람의 손길이 들어간 2D 애니메이션만이 진정한 예술이고 3D 애니메이션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3D는 픽사에 의존하고 내부에 3D 기술을 축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2D의 인기는 감소하고 3D가 애니메이션 흥행을 주도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흥행에 크게 기여한 픽사는 자신들이 노력해 거둔 이익 대부분을 디즈니가 가져가자 디즈니와 결별하고 독자노선을 걸으려 했다. 그러자 디즈니는 할 수 없이 거액을 주고 픽사를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예술에서 기술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대에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디즈니는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AI가 예술가를 위협할까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는 AI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AI가 기존의 예술가만큼 수준 높은 창작을 하고 예술가를 일부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AI가 쓴 소설이 문학상을 받는가 하면 AI 화가가 창작한 미술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 로봇과 인간이 공동으로 공연을 하

고 로봇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도 더 이상 놀랍지 않다. 게다가 AI는 일반인이 쉽게 예술을 창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I는 예술가라는 전문가에게만 열려있던 예술 창작의 문을 일반인에게 활짝 열어놓았다. 앞으로 AI와 알고리즘의 환경에서 태어나 이를 익숙하게 활용하는 AI 네이티브 세대는 예술 활동을 일상생활화할 것이다.

혹자는 사진기술이 나오면서 미술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사진-미술의 관계와 AI-미술의 관계는 크게 다르다. 그 차이는 바로 창의성이라 할 수 있다. 사진은 풍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만 미술가는 풍경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작품에 담아낸다. AI가 문화예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지는 그것이 인간의 창의성에 어느 정도 도달할 것인지에 달려있다.

창의성을 가진 AI 나타날 것인가.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전되고 알고리즘의 마술은 진정한 융합을 실현한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의 힘이 더해지면 창의성 있는 AI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창의성이 데이터의 씨줄과 날줄의 조합으로부터 나왔다고 보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창의성 있는 AI가 출현하면 AI 예술가와 인간 예술가가 공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술가의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장기적으로 예술가는 기술자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처럼 AI가 예술의 창의성 영역에 진입하면서 기존 예술생태계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적이다.

AI 예술의 저작권 및 편향성 문제

AI 시대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아마추어 예술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AI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와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더 많은 바둑 애호가들이 늘었다는 사실로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AI 시대의 흐름은 수요자가 문화예술에 대해 무엇을 원하고, 예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다. AI가 만든 미술이나 음악이 잘 팔린다면 여기에 예술계도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예술가가 직접 창작하는 예술품은 여전히 존중받고 높은 가격에 팔릴 것이고, 팔리는 것과 상관없이 예술적 의도에 의해 작품은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AI가 촉발할 예술 분야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다.

AI 예술 작품이 상업화되었을 때 우려되는 문제 중 시급한 것은 저작권 문제이다. AI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했다고 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기에 저작권을 줄 수는 없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논의 중이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단지 예술가를 보호하는 관점이나 경제 논리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다.



← 이미지 생성 AI 딥그림의 그림 중 에디터가 선정한 베스트픽

AI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인간성이란 무엇이고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AI가 만들어내는 작품의 편향성도 경계해야 한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AI가 인종차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 논란된 적이 있다. AI가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학습하는 데이터에 한쪽 인종이 월등히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데이터의 편향이 예술 작품의 편향성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전파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은 앞으로의 AI 기술이 풀어야 할 숙제이다.

예술 생태계의 변화와 메세나

AI의 영향으로 예술 생태계가 변화됨에 따라 메세나의 개념과 범위도 변화되어야 한다. 메세나란 용어의 유래가 된 로마 제국의 마이케나스, 메세나의 모델로 손꼽히는 피렌체의 메디치가는 당대의 예술가를 지원했다. 이렇게 메세나는 예술가 지원으로 시작해 점차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했다. AI 시대의 메세나도 예술가, 예술 활동, 예술 활동 장소, 예술활동을

통한 기업의 마케팅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를 전제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메세나의 방향은 AI와 예술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 따라 달라질 것이다. 첫째, AI가 인간의 예술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예술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일부 작업을 AI가 돕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AI를 창작의 도구로 활용하는 예술가는 계속 등장하고 있고 다가올 AI 시대에는 더 많은 활용과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예술가가 AI를 더욱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예술의 수요자였던 대중이 일상 속에서 창작을 즐기는 변화가 가속화된다면 대중을 위한 AI 예술 프로그램, 장소 등도 메세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메세나가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예술의 부흥과 발전, 그것을 통한 행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I를 활용하는 일반 대중의 예술 활동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것도 메세나의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편향성의 문제, 인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도 메세나의 역할로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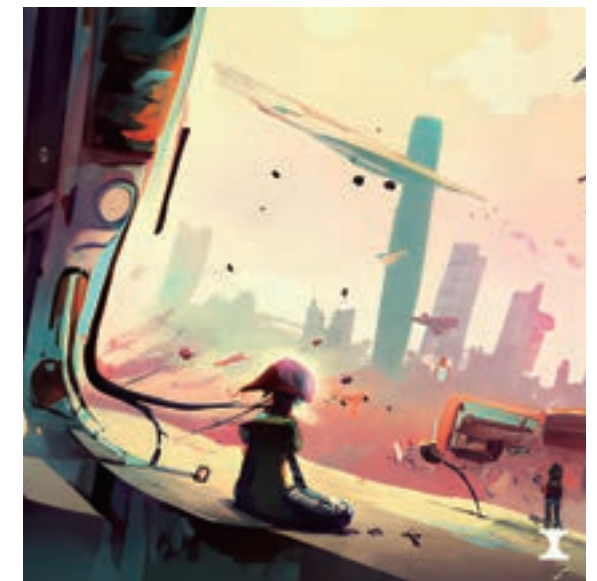
예술을 풍요롭게, 인간을 행복하게

AI 예술은 외면하거나 경시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날때부터 AI를 활용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일상 곳곳에 AI가 침투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며 예술 분야에도 많은 영향이 예상된다. AI 예술이 거대한 사조로서 도래한다면, 선제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이끌어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AI 예술을 주도하는 예술가가 늘고 우리나라가 AI 예술을 선도하는 미래도 기대된다. AI로 예술 창작을 즐기는 대중과 아마추어 예술가가 늘어나는 것은 예술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예술가들도 새로운 자극을 받아 예술 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낙관을 현실로 바꾸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메세나는 새로운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며 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있어 한발 앞서 담론을 주도하고



↑ 이미지 생성 AI 칼로가 '예술 후원의 미래'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



→ 이미지 생성 AI 칼로가 '아트, 퓨처,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키워드로 그린 그림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AI가 인간과 예술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다. 

SPOTLIGHT

2023년 문화예술계에는 한화그룹의 풍피두센터 서울관 유치 소식이 전해졌다. 한화문화재단은 2025년 풍피두센터 개관 계획과 함께 최근에는 신진 미술가를 위한 해외 레지던시 지원 계획도 밝혔다. 메세나는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기회를 늘리고 다양한 예술이 싹 트는 토양을 제공한다. 이번 호 'SPOTLIGHT'에서는故 박영주 이 건산업 회장의 문화예술을 향한 헌신, DAC 아티스트로서 의미 있는 창작을 이어가는 국악인 이승희, 스페인과 베트남의 미술을 꽃 피운 기업들의 이야기를 만나 본다.



예술로 사회에 공헌한 기업인의 표상

故 박영주 회장
이건그룹 창업주

지난 3월 6일 작고한 박영주 이견그룹 창업주 회장은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선구적인 메세나 활동으로도 많은 이의 존경을 받은 기업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조차 부족했던 때에 '이견음악회'를 시작해 대한민국 대표 메세나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켰고, 한국메세나협회의 제6·7대 회장으로서 과감하고 획기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 메세나의 중흥을 이끌었다. 예술의 감동을 널리 나누며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했던 박영주 회장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본다.

글 편집부 | 사진 제공 이견산업

박영주 회장 프로필 주요 사항

- 1975.12 광명목재 대표이사
- 1978~1993 이견산업 대표이사
- 1988 이견창호시스템 대표이사 회장
- 1989 이견자원개발 대표이사
- 1993 이견산업 대표이사 회장
- 1994 APEC 자문기구 퍼시픽 비즈니스 포럼 한국대표
- 2001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2002 태평양 경제협의회 한국위원장
- 2005 한국메세나협회의 회장
- 2006 포스코 이사회 의장
- 2009 현대미술관회 회장
- 2012 예술의전당 이사장

주요 수상 내역

- 1988 국가 산업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 1998 솔로몬제도 정부 최고훈장
- 2001 칠레 정부 최고훈장
- 2001 금탑산업훈장
- 2005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 2008 한국경영인협회 '2008 대한민국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 2013 칠레목재협회 '올해의 기업상(Company of the Year)'
민간기업 최초 수상
- 2014 한국메세나대상 메세나인상
- 2015 은관문화훈장
- 2017 유네스코 선정 '올해의 인물상'
- 2018 '제6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글로벌 CSR 부문 정부 포상
- 2019 EY한영 EY 최우수기업가상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 수상



박영주 회장이 자택으로 이견음악회 연주자들을 초청해 환영 만찬을 열고 한옥을 설명하는 모습

대한민국 대표 메세나, 이견음악회

연주자들을 감동시킨 한국의 정

이견음악회는 1990년에 시작되어 33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진 무료 클래식 공연이다. 기업이 무료로 여는 클래식 공연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기도 하지만 33회 동안 규모나 내용 면에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는 점도 메세나 활동의 귀감으로 손꼽히는 이유이다.

박영주 회장이 이견음악회에 가졌던 애정은 남달랐다. 음악회에 관해서라면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직급을 막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중간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음악회의 기획부터 실행,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애정을 담아 살피고 함께했다.

전 세계에서 초청된 연주자들과 교류하는 데도 진심이였다. 연주자들을 자택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열고 극진히 대접했다. 자택은 외국인에게 한국의 미풍양습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 온 고풍스러운 한옥이다. 박 회장은 그 공간에서 연주자들이 우리나라의 식문화를 경험하고 한국 특유의 '정情'을 느낄 수 있도록 애썼다. 연주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연주로 그 마음에 화답했다.

마리안 앤더슨에서 이견음악회까지

이견음악회의 출발점은 박영주 회장의 유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 전쟁의 화마로 삶의 터전이 폐허처럼 모두가 힘들었던 1950년대, 부산에서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에 다니던 소년은 피난민을 위한 미군부대의 위문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된다. 제22회 이견음악회에서 공연한 클라리네티스트 샤론 캄Sharon Kam이 음악회를 만든 계기에 관해 물었을 때 박 회장은 그날의 기억을 회상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운동장에 반원형으로 차를 세우고 헤드라이트를 밝혀 무대를 만들더라고. 그렇게 많은 차가 모여 있는 것도 아마 그날 처음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안 앤더슨의 노래가 울려 퍼졌지.”

마리안 앤더슨Marian Anderson 1897~1993은 세계 최초의 흑인 오페라 가수이자 미국의 위대한 여자 성악가로 기록되는 인물이다. 자신의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청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노래했던 앤더슨은 박 회장이 회상했던 부산 공연도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 남겼다. 낮고 묵직하게 뻗어나가는 목소리, 감동 받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하던 모습은 소년의 마음에 '음악을 통한 감동'이라는 뜨거운 울림으로 뿌리내렸다. 소년은 그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음악으로 삶을 풍요롭게

이견음악회가 시작된 1990년의 상황을 보면 박영주 회장의 타고난 실천가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는 클래식이 지금보다 더 대중과 유리되어 있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연을 접하기 쉽지 않았고, 클래식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컸다. 기업경영에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미비했던 때였다. 기업의 대외활동은 약자를 위한 나눔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음악회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은 사내에서도 적잖은 반대에 부딪혔다.

“사람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선량함과 아름다움을 배양해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음악 이상의 것이 있겠는가.” 박 회장은 음악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견음악회를 기획하면서 예술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을 펼치기 위해 반대 의견을 가진 임직원들과 끊임없이 대화했다. 음악을 사랑하는 박 회장의 오랜 진심, 예술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구성원들에게 전해졌다. 이견음악회는 그렇게 구성원 모두 함께하는 이견의 대표 나눔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이견음악회를 지켜온 진심

첫 음악회는 인천에 위치한 이견산업 공장에서 열렸다. 작은 목재회사가 대중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를 준비하려니 막막하기도 했지만, 전문 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실행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음악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나누고 싶은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이견음악회는 착실히 성장하고 확대되었다. 지금은 사라지고 공원으로 재탄생한 인천시민회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기념관, 예술의전당으로 규모를 늘렸다. 2회까지는 서울과 인천에서 열렸고

1 자택으로 이견음악회 연주자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박영주 회장

2 제1회 이견음악회 연주팀 아카데미아 목관 5중주단

3회부터는 부산, 안산, 대전, 광주, 대구 등으로 개최 도시도 확대되었다.

1990년부터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음악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박영주 회장의 강한 의지 덕분이었다. 나라가 휘청이던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공연을 미루자는 의견도 많았지만 박 회장은 '기업의 예술 후원은 꾸준함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박 회장은 연주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한국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이견음악회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을 설명했다. 진심 어린 회장의 설득에 감동한 연주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연주로 음악회를 빛냈다.

이견음악회는 세계적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연주를 국내

에 소개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클래식 공연 문화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왔다. 특히, 연주회 구성에 한국적인 요소를 더해 청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2회부터는 한국의 전통민요인 아리랑이나 대중에 잘 알려진 가곡, 가요 등을 클래식으로 편곡해 앵콜곡으로 선보였다. 이 무대는 연주자가 관객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며 한국 음악을 경험하고, 관객이 클래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2012년에는 신진 작곡가를 발굴하는 '아리랑 편곡 공모전'을 시작했다. 당선자가 편곡한 아리랑을 세계적인 음악가가 연주하는 이 공모전은 신진 작곡가에게 창작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클래식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제33회 이견음악회에 출연한 뷔르템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일브론



대한민국 문화 외교관으로 기억될 이름

솔로몬제도 명예총영사

박영주 회장은 해외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해외 각국에서 영예로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1998년에는 솔로몬제도 정부, 2001년에는 칠레 정부의 최고훈장을 받았다. 2005년에는 독일 뮌헨 문화재단이 문화경영을 선구적으로 실천해 온 메세나 인사에게 수여하는 '뮌헨 문화예술 후원자상'을 수상했다.

“차별 없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라.”

박영주 회장이 중요하게 여기며 몸소 실천해 온 생각이 담긴 말이다. 이 말은 이견산업이 해외에서 전개하는 비즈니스와 메세나 활동의 지향점이 되었다. 이견산업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그곳의 삶을 변화시키고 현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솔로몬제도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이견산업의 자체 조립지가 있는 곳이다. 이견산업은 1995년에 솔로몬제도 정부로부터 유칼립투스 나무가 울창한 숲을 매입해 관리하고 있다. 박 회장은 1993년에 주한 솔로몬제도 명예영사, 2013년에 명예총영사로 임명되어 한국과 솔로몬제도 간 협력 증진에 기여했다. 명예영사는 영사가 없는 국가에서 민간인에게 부여하는 영사직이다.

해외 진출의 원칙과 태도

2000년 솔로몬제도에서의 일화는 그곳에서 박영주 회장과 이견산업의 신망이 얼마나 두터운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솔로몬제도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반군이 이견산업의 장비를 몰수했는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반군 대장이 박 회장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박 회장은 해외 오지에 새로운 문화를 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했다. 솔로몬제도의 현지 문화를 훼손하지 않고 문명의 편의를 더한다는 태도로 현지인의 마음을



3



4



5

③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33회 이견음악회 출연자 기념 사진
④ 제33회 이견음악회의 연주자들과 클래식 팬들이 만났던 사인회
⑤ 이견음악회 초청 연주자의 멘토링을 제공한 마스터클래스



술관은 솔로몬제도의 수도 호니아라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던 역사적 건물에 건립되었다. 1978년에 솔로몬제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인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었던 건물인데 1995년에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로 매각 계획을 세운 것이 논의의 출발이었다.

매각 소식을 들은 박 회장은 역사적 건물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당시 수상에게 연락을 취했다. 건물을 개조해 국립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이건설업이 25만 달러와 시공전문가를 지원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5만 달러를 원조해 1997년에 솔로몬 국립 미술관을 개관했다. 이후 솔로몬에서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는 동안 국립미술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문화예술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박 회장의 뜻은 지금도 솔로몬제도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칠레 현지 법인의 메세나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박영주 회장의 철학은 남미의 칠레에서도 지역사회와 공존하고자 하는 이건설업의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건 라우타로 주식회사'는 칠레의 조림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세계 주요국에 수출하는 현지 법인으로, 종업원 600명 중 40퍼센트 정도가 현지 원주민이다.

이 법인을 통해 칠레에서 펼치는 문화예술사업은 이건설업과 한국에 대한 현지 주민의 호감과 신뢰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1998년에 시작된 '라우타로 어린이 사생대회'이다.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사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예술 경험을 지원하고 있다. 법인은 지역 전반의 예술 발전을 위해 음악·연극 공연과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기부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한국에서 온 그랜드 피아노

박영주 회장이 칠레 라우타로시에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한 일은 수준 높은 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향유하고 싶었던 문화예술 후원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일화

이다. 2014년에 박 회장은 라우타로시가 건립한 문화센터 Centro Cultural Lautaro를 방문했다. 그때 500석 규모의 콘서트홀에 오르간이 설치된 모습을 보고 공연을 위한 고품질의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연주자가 아름다운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에 라우타로시와 협의해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바로 피아노를 만드는 한국기업에 연락해 프로 연주자용 그랜드 피아노를 제작하도록 했다. 아이들의 음악교육을 위한 연습용 피아노도 함께 기증했다. 라우타로시는 기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남미의 유명 피아니스트인 로베르토 브라보(Roberto Bravo)를 개관기념 공연 연주자로 초청했다. 라우타로시 출신의 이 연주자는 고향 사람들 앞에 서는 뜻깊은 자리에서 최고의 그랜드 피아노로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문화예술의 감동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기업인과 예술가, 시민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었던 일이다.

메세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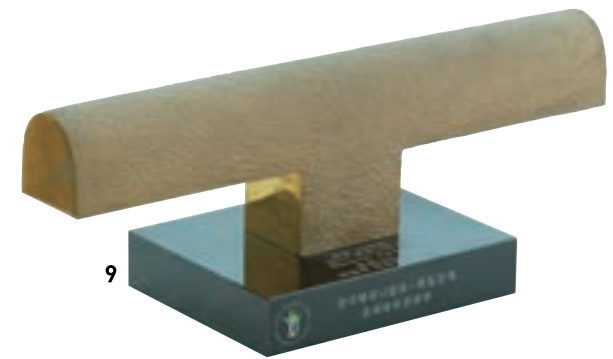
박영주 회장은 작은 기업을 크게 키운 입지전적 인물이자 수출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이다. 전경련 부회장으로서 수많은 기업인과 교류했고, 전경련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업이 재무적 성과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신념을 공유했다. 특히, 예술 애호가이자 후원자로서 문화예술이 찬란한 꽃을 피워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세상을 앞당기고자 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제6·7대 회장으로서 남긴 족적도 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은 더욱 부족했던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메세나의 가치에 공감하고 동참하도록 설득해 활동 기반을 확대했다. 2007년에는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을 시작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메세나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칭펀드 사업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며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상생하는 메세나의 중요한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메세나를 왜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박영주 회장은 확고



⑥ 2001 금탑산업훈장 수훈
 ⑦ 2015 은관문화훈장 수훈
 ⑧ 2014 메세나대상 시상식에서 메세나인상을 수상한 박영주 회장
 ⑨ 2014 한국메세나대회 '메세나인상'패



한 답을 갖고 있었다. 박 회장은 "나중에 기업 규모가 더 커지고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결코 메세나를 시작할 수 없다. 규모를 떠나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사회에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이행하면 된다."라는 말을 남겼다. 오늘 메세나를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못할 이유를 먼저 찾고 있다면, 고인이 일평생 지켜온 꿈과 뜻을 곱씹어볼 일이다. ❧

이건음악회를 관람하는 박영주 회장

연었다. 이건설업이 솔로몬제도에 처음 진출했을 때는 과거 선진국들이 무절제한 벌채와 자연 파괴를 일삼으며 남긴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를 본 박 회장은 두 가지 원칙을 세웠다. 하나는 직경 50cm 이하의 나무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 다른 하나는 나무를 벤 자리마다 반드시 나무를 다시 심는다는 것이었다.

이건설업은 솔로몬제도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1989년에는 이견파운데이션(Egon Foundation)을 설립하고 현지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했다. 조림지 주변 마을에는 수도, 전기, 학교, 병원, 마켓, 경찰서 등 인프라 시설을 확충했다. 조림지 주변이 살기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지역에서도 사람이 몰려들어 지금까지 마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한국에서 유학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솔로몬 국립 미술관 건립

이견파운데이션의 대표 사업인 솔로몬 국립 미술관 건립은 박영주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솔로몬 국립 미

반복되는 삶을 현재의

시 선 에 담 다

이승희
소리꾼·국악 창작자

글
장경진 공연칼럼니스트

사진
손홍주

사진 제공
입과손스튜디오

이승희 소리꾼이 최근 공연한 작품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이하 《구구선 사람들》)은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재해석한 창작판소리이다. 작품은 시대가 변하고 삶의 질이 과거와는 다르게 좋아졌어도, 개선되지 않은 불평등이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소리꾼은 누구나 아는 소설에서 지금의 우리와 닮은 삶을 찾아내 이야기를 다시 썼다.



시대가 달라져도 반복되는 이야기

“얼마 전, 미혼모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우리 사회는 왜 여전히 미혼모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 기사를 볼 때면, 『레미제라블』이 옛날이야기 혹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자각이 들어요. 1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왜 어떤 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인식은 왜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까. 왜 모든 문제를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는 걸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질문을 《구구선 사람들》을 통해 관객과 나누고 싶었어요.”

《구구선 사람들》에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가난으로 범죄자가 된 남자와 아이를 키질 수 없는 미혼모, 미래가 모호한 청년과 길 위로 내몰린 아이이다. 작품은 비극으로 가득하지만, 이들은 불행에 지지 않고 나름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과 싸운다. 무대에는 절망과 해학이 함께 널을 뿜다. 이승희는 《구구선 사람들》을 준비하며 소리꾼의 태도와 정체성을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판소리는 소리꾼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고, 그렇기에 그것을 말하는 소리꾼의 입장이 무엇이나에 따라 작품의 방향이 달라져요. 소리꾼은 가수일 수도 연기자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리꾼이라는 자아를 통해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예요.”

소리꾼의 태도와 정체성

이승희는 11살에 판소리를 시작했다. 1등을 향한 열망이 그를 움직였고, 부단한 연습으로 만든 희열과 자유로움이 판소리를 사랑하게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2년쯤 지났을 때는 ‘내가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소리를 배운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돌아왔고 공연을 보기 시작했다. 판소리도 저렇게 많이 공연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보면 볼수록 더 무대에 서고 싶어졌다.

이승희라는 이름을 대중에 알린 것은 2009년이였다. 이자람이 만든 창작판소리 《사천가》, 한국전통음악을 변형한 그룹 ‘비빙’의 《이면공작》, 현대무용가 안은미의 《십포카바리-이승편》을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 무대에 서며 소리의 외연을 확장했다.

“서로 다른 방식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각 단체의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바빴어요. 어떤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었고, 무언가를 깨닫기도 전에 주어진 것들을 수행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작업의 과정과 동료들이 정말 좋았어요. 돌아보면 한 사람이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경험한, 쉽지 않은 기회였잖아요. 의도치 않게 단기간에 현대 예술을 체득하며 레벨업을 한 거죠.”

2017년, 이승희는 ‘입과손스튜디오’ 동료들과 함께 주체적인 창작자로서의 길을 선택했다. ‘지금’의 관객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통만으로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것들과의 접목을 시도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전통을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랐기에 작품을 만들 때 판소리 안에서 소리꾼의 존재, 판소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다.

소리꾼이 어떤 태도를 갖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것들이 잘 보여야 전통 판소리 다섯 바탕도 함께 즐길 레이어가 두터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고민은 〈동초제 심청가〉와 〈강산제 수궁가〉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완창 판소리 시리즈》로, 판소리의 형식과 서사를 향한 끊임없는 실험으로 이어졌다.

2017년 말에는 이러한 고민과 실험을 함께할 파트너를 만났다. 젊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두산아트센터 DAC Artist로 선정된 일이였다.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동초제 춘향가〉를 바탕으로 한 《몽중인 시리즈》를 선보일 수 있었다. 소리꾼은 춘향의 내면에 집중했고, 향단을 통해 21세기 청년 여성과 만났다.

“두산아트센터는 아티스트가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도록 지원했어요. 과거의 저는 제가 뭘 생각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이 작업을 계기로 창작자로서의 이승희를 정립할 수 있었어요. 창작자로서 판소리의 본질과 그 중요성을 깊게 고민하는 기회를 얻었고 다양한 관객을 만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넘어 ‘나’를 보여주는 소리꾼

이승희는 전통 판소리 다섯 바탕을 지금의 감수성으로 다시 읽어내고, 판소리의 여러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



현하는 시도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판소리의 현대화를 고민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15년간 경험한 변화를 주목한다. 우선, 본인의 색을 찾으려는 소리꾼이 많아진 점이 고무적이다.

“판소리는 점점 나아질 수 있는 매체예요. 전통 판소리도 점점 변화하고 소리꾼에 따라 해석도 달라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초반에는 ‘판소리’라는 어떤 틀이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많은 게 점점 깨지고 열려요. 판소리는 소리꾼이 어떤 태도로 관객과 이야기를 감싸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커지기도 깊어지기도 해요. 이런 판소리의 유연함이 창작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소리꾼이 인물과 이야기에 수시로 개입하는 판소리는 결국 소리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이승희는 위대한 사람보다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오해받는 인물의 내면에 집중해왔다. 예전에는 어떤 이미지에 스스로 들어가고는 했다. 스스로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 작품이 쌓이고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의 하나라는 것을 더 많이 자각하기 시작했다.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꾸준한 대화가 삶과 작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이승희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인복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세상을 보듬어줄 수 있는 소리꾼이 되고 싶다.

31년 차 소리꾼이자 국악창작인이라는 말이 크게 어색하지 않은 지금의 자신을 이승희는 매일 마주한다. 재미로 시작한 우연이 삶의 일부가 되기까지 무수히 겪었던 기대와 좌절, 고민하고 용기를 냈던 시간들을 잊지 않는다. 《구구선 사람들》 속의 사람들, 지금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삶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어 간다.

어릴 때의 스승은 소리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들려 주었다.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렇게 인생이 달라질 때마다 같은 대목도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매일의 삶과 고민에 더 치열해진 이승희는 그 말을 자주 되새긴다.

“그 말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같아 보여도 같지 않은 경험을 하며 제 마음도 함께 성장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삶을 노래하는 판소리의 변화무쌍함이 좋아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나이를 먹고 세상은 바뀌겠죠. 거기에 수긍하면서 계속 판소리를 할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는 감정과 순간을 느끼면서요.”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에서 공연된 《판소리 레미제라블-구구선 사람들》의 주요 장면 ©WWG

2007~2023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지금은 예술 후원의 판을 키워야할 때

한국메세나협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Business' 사업이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했다.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예술계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사업은 기업과 예술계의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는 기업 결연 프로그램으로, 2007년 '예술지원 매칭펀드'가 출범하면서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글 백민현 한국메세나협회 A&B팀 선임

기업과 예술을 연결하는 대표 사업

한국메세나협회의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이하 매칭펀드)은 올해로 17년째 진행되고 있다. 협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 운영하는 이 사업은 기업의 예술 기부금에 공공 펀드(문예진흥기금)를 더해 예술계 창작활동을 돕는 대표적인 민간 협력 예술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17년간 매칭펀드는 기업의 예술 후원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자 기업과 예술계의 파트너십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2023년 올해 매칭펀드는 214개 기업과 200개 예술단체가 참여 신청을 했고, 이 중 154개 커플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07년 매칭펀드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참여 커플은 27개에 불과했는데, 당시와 연간 결산 실적이 확정된 가장 최근 연도인 2022년(213개 커플)을 비교하면 결연 커플이 약 7.9배 확대되었다. 같은 기간 연간 기업지원금은 약 6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지원 규모가 5.5배 늘었고, 공공 펀드는 6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3.7배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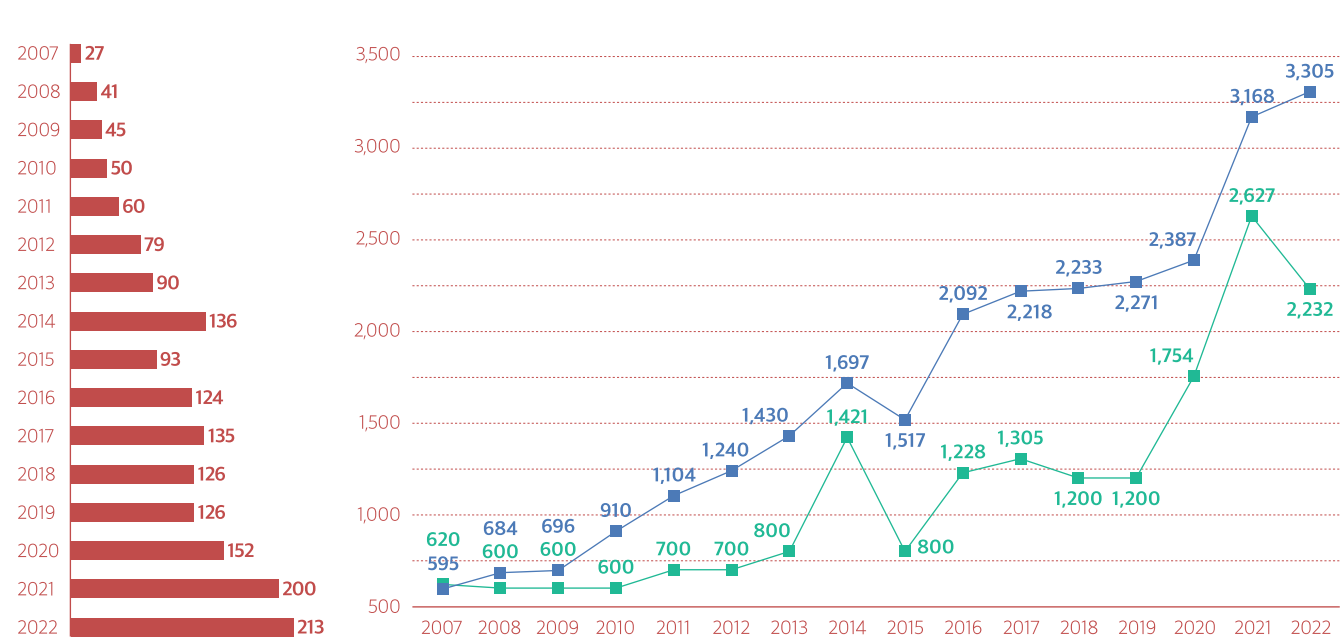
누적 기업지원금 첫해의 46.8배

2022년까지 매칭펀드 현황을 보면 총 1,697건의 결연이 성사되었고, 총 465억 원(기업지원금 281억 원, 공공 펀드 184억 원)이 예술계에 지원되었다. 사업 첫 해와 비교하면 기업지원금은 46.8배, 공공 펀드는 30.7배의 금액이 누적 지원된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를 통해 지난 10여 년간 매칭펀드가 규모 면에서 크게 발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칭펀드처럼 공공 펀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수많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중 전례를 찾기 힘들만큼 특별하다. 그만큼 공공 재원의 운영 주체인 정부도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필요성과 매칭펀드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공공 지원은 그 재원이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결정할 때 공평성, 보편성, 시급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가하는 예술계의 지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가 문화예술 분야에만 공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일부 보완하는

관점에서 민간 기업의 예술 지원 참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을 예술계로 유입시키는 즉각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매칭펀드 운영에 필요한 공공 재원도 점차 확대되었다. 한국메세나협회의 매칭펀드가 기업의 예술 후원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벤치마킹한 지역 매칭펀드 프로그램들도 생겨났다. 2008년 경남메세나협회를 시작으로 2009년 부산문화재단, 2012년 서울문화재단, 2016년 제주메세나협회(제주문화예술재단), 2022년에는 세종시메세나협회와 부산메세나협회가 매칭펀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 공공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소규모 매칭펀드가 운영되고 있다. 매칭펀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국가와 지역의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매칭펀드가 장기적으로 지속 운영되면서 기업과 예술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술지원 매칭펀드 결연 현황(2007~2022년)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위한 17년

2000년대 초반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 사회복지 기부 활동이 CSR의 대부분이었던 기업들에게 예술 후원 등 메세나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참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협력해 기업에 메세나 활동의 가치를 널리 알려 문화경영 참여를 돕고, 이를 예술계 지원으로 연결시켜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 출범한 사업이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다. 이 사업은 크게 기업과 예술계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기획과 컨설팅, 홍보 등

을 지원하는 기업 결연 사업과 공공 펀드를 추가 지원하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나뉜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이 시작된 2005년에는 기업 결연 사업만 운영되었고, 그해 12월 사업 출범식과 기업-예술단체 결연식을 처음 개최했다. 당시 첫 결연을 맺은 커플은 현대백화점과 서울팝스오케스트라, 복음보청기와 메이트리 두 커플이 전부였다. 이어 2006년에는 15개 커플이 결연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다.



매칭펀드 사업의 출발

기업과 예술단체간 1:1 매칭 시스템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면서 2007년 매칭펀드 사업이 도입되었다. 매칭펀드는 예술 지원에 참여할 의사는 있지만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 환경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메세나 활동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던 당시 박영주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여기에 대기업의 지원을 받기 힘든 지역 예술단체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김명곤 문화부 장관의 바람이 일치하면서 사업의 첫 걸음을 뚫 수 있었다.

매칭펀드는 1984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뉴파트너스(New Partners)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2007년 한국메세나협회, 문화부 관계자, 학계 및 언론계 종사자로 구성된 조사단이 영국의 기업 메세나 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사업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 영국 현지를 방문했다. 조사단은 우리나라의 메세나협회에 해당하는 영국 A&B를 방문해 당시 40억 원 규모로 운영되던 뉴파트너스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했다. 영국 문화부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위원회에 해당하는 Arts Council England, 유니레버 등 대표 메세나 기업, 테이트모던 등 예술기관도 방문해 영국 메세나 활동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뉴파트너스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한 '예술지원 매칭펀드'가 만들어졌다.



예술지원 매칭펀드 출범을 주도했던 故 박영주 제6·7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매칭펀드 사업의 단면, 공공 지원의 한계

이후 매칭펀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 금액, 결연 커플수 등 양적 측면에서 급격히 성장했다. 사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기업의 예술 지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원 창구로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매칭펀드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참여한 예술단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참여한 예술단체의 비중이 60% 이상이다. 매칭펀드가 예술단체에 기업 후원을 유치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기업과 예술단체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지속해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양면(兩面)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단순히 비중만으로 본다면 기업의 지원과 공공 펀드의 혜택이 일부 예술단체에만 집중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종의 편중 현상은 매칭펀드 사업의 특성과 한정된 공공 재원으로 운영되는 현실적인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매칭펀드는 기업 후원금 유치를 전제로 공공 펀드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과 파트너십 경험이 많은 예술단체가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재참여 비중도 크다.

매칭펀드 사업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예술 후원 참여 확대가 주목적이다. 그만큼 기존 참여 기업과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들이 예술 후원에 동참해 더 많은 예술단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2020년 이후 세종시, 부산 지역에도 메세나협회가 설립되면서 지역 기업들의 예술 후원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메세나협회를 비롯한 전국의 메세나단체는 매칭펀드 신규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고, 예술 활동 기반이 열악한 지방 지역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국회에 공공 펀드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다만 공공 지원 예산을 수요에 비례해 상시적으로 확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2007년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2020~2022년 예술지원 매칭펀드 재참여 현황(예술단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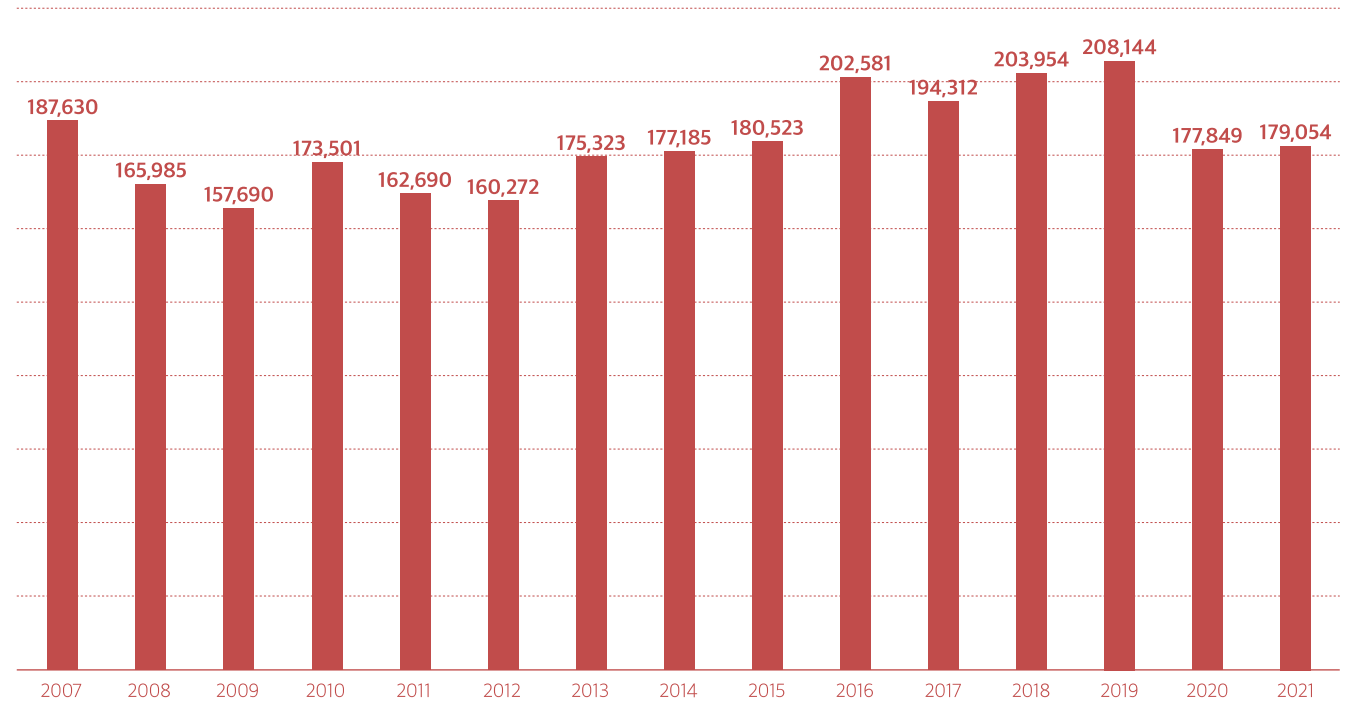
연도	신규 참여	2~3년차	4~5년차	6년차 이상
2022년	79건 (37.1%)	70건 (32.9%)	26건 (12.2%)	38건 (17.8%)
	37.1%	재참여율 62.9%		
2021년	76건 (38.0%)	61건 (30.5%)	30건 (15.0%)	33건 (16.5%)
	38.0%	재참여율 62.0%		
2020년	67건 (44.1%)	34건 (22.4%)	25건 (16.4%)	26건 (17.1%)
	44.1%	재참여율 55.9%		

매칭펀드 이외의 민간 예술 후원

매칭펀드가 시작된 이래로 사업을 통해 유입된 기업지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만큼 사업의 외연도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기업의 예술 지원 규모도 증가했을까. 한국메세나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한국메세나협회는 매년 '기업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를 실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기업이 진행한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칭펀드가 시작된 2007년 기업들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 건수는 2,402건, 총 지원 금액은 1,876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14년 후인 2021년에는 지원 건수가 1,051건, 총 지원 금액이 1,790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결과 수치만 본다면 매칭펀드가 시작되고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예술 지원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기업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의 지원 총액에는 매칭펀드의 기

업지원금도 합산된다. 2021년 기준으로 매칭펀드 기업지원금은 31.7억 원인데 이는 조사 결과의 지원 총액 대비 약 1.8%에 불과하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전반적인 기업의 대외 지원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영향도 감안해야겠지만, 이 결과는 매칭펀드 사업의 성과만으로 막연히 기업의 예술 지원 활동 자체가 확대되었다고 낙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매칭펀드는 기업 메세나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공공 매칭사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예술 후원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더불어 공공 예술 지원의 재정적 근간이자 매칭펀드 운영 재원인 문예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공공 지원을 보완하는 민간 후원 확대를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한국메세나협회 '기업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 2007~2021년 예술 지원 총액 (단위: 백만 원)



타분야 대비 최하위 수준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

이제는 기업의 예술 지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 펀드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매칭펀드뿐만 아니라 실효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지원금 지출을 직접 유도해 예술 후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예술 분야는 공공 지원이 타 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6조 7,076억 원으로 정부 총예산 639조 원 중 약 1.05%에 불과할 만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공 지원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 예산은 체육 분야를 합산한 금액이므로 순수 문화예술 지원 예산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공공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 기부와 관련해서도 문화예술 분야는 사회복지 등 타 분야에 비해 기업의 기부 규모가 매우 낮

고, 우선순위로 최하위 분야이다. 아름다운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1~2022년 기부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 분야 자선단체 기부가 매해 1순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외구호, 지역사회, 시민단체, 교육, 의료, 문화예술 순이었다. 이 조사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2009년 이후 10년 이상 최하위를 기록했다. (*출처: 아름다운재단 제22회 기부문화심포지엄 보고서 『국내 데이터로 본 20년간의 한국 기부규모 변화』) 더불어 국제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돌입함에 따라 기업의 전반적인 기부 활동이 상당기간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화예술 분야에도 이 여파가 미칠 것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선진적 세제 지원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따른 기업 기부 감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술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절실

현재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산입 방식의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정되며 기업이 얻는 실질적인 기부 혜택은 미미하다. 물론 현재의 법제도 안에서는 타 분야에 대한 기부금 역시 동일한 세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절실하다. 이에 한국메세나협회는 2000년 후반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국회에 기업의 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부침이 있었다. 다행히도 지난 2022년 8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다시 한번 수정 발의되었고, 현재 관련 소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의 정책적 마중물 지원이 기업의 자금을 문화예술 분야로 유

입시키는 직접 효과를 창출한다는 사실은 매칭펀드를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여기에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더해진다면 기업은 기부 활동의 정성적 효과(기업 이미지 제고 등) 외에도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획득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기부 참여를 유인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 분야에 기업의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정책이며, 지금이 그 제도를 도입할 최적기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 기업의 후원은 곧 예술계 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 금융과 예술

스페인 산탄데르은행의 메세나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에는 산탄데르금융시티라 불리는 작은 도시가 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금융기업 산탄데르은행이 금융과 예술이 나란히 발달한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온 곳이다. 산탄데르금융시티뿐만 아니라 아르코 아트페어 후원, 산탄데르 예술상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산탄데르은행의 메세나는 기업 사회공헌의 좋은 모델이 되어 기업, 문화예술,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

글 최선희 초이앤초이갤러리 대표 | 사진 제공 최선희, 산탄데르은행재단

160년 역사의 산탄데르 아트 컬렉션

지난 2월에 스페인의 아르코ARCO 국제현대아트페어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문화예술 인프라를 견고히 다지는 스페인 예술 생태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미술관, 공공 기관, 사기업이 함께하고 크고 작은 규모의 컬렉션을 만들어가는 개인 컬렉터, 예술 애호가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던 아르코는 정열의 나라 스페인 사람들의 예술을 향한 열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아트페어가 열리는 기간에 여러 VIP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산탄데르은행Banco Santander이 기획한 행사였다. 일행은 산탄데르금융시티Santander Finance City의 조각공원과 미술관을 방문했다. 산탄데르금융시티는 마드리드 시 북부에 위치한 소도시와 같은 곳으

로 2016년도에 만들어진 이후 마드리드 금융계의 중심이 되어왔다. 버스에서 내리니 광활한 부지에 심어진 수천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이 올리브 나무들은 유럽 곳곳에서 수입되었는데 수령 천 년이 넘는 나무도 있다.

산탄데르금융시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대형 조각 작품들을 비롯해 전 세계 작가들의 조각 작품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중심이 되는 건물에는 산탄데르은행이 소장품을 선보이는 미술관이 있다. 미술관은 피카소나 살바도르 달리와 같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동시대 현대 미술 작품들을 전시한다. 산탄데르은행이 '산탄데르 아트 컬렉션'이라는 공식 이름으로 소장 중인 미술품의 규모는 양적으로나 질적

SPAIN





2022년
국제 박물관의 날을 기념해
산탄데르미술관에서
선보인 현대 무용 공연
©Estudio Perplejo

으로 압도적이다. 16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스페인을 대표하는 기업 컬렉션으로 꼽힌다.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

산탄데르은행은 재단을 설립해 문화예술과 그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아트페어를 후원하고 미술관을 운영할뿐만 아니라 '산탄데르은행 예술상'을 만들어서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스튜디오와 창작 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과 과학 부문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는데 '유니소시에타UniSocieta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교육 참여를 지원하며, 과학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는 이들의 미션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재단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단은 문화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홍보하는 것, 취약계층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환경 보호를 포함하는 세 가지 분야에 거침없는 메세나 활동을 추진합니다'

스페인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문화예술을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산탄데르은행의 노력은 스페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산탄데르은행의 메세나 활동은 본사가 있는 스페인에서 가장 활발하지만 은행 본점이 있는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다채롭게 전개된다. 재단은 더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

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평등성을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확장하고자 노력해왔다.

앞서 언급한 산탄데르 은행 컬렉션이 높이 평가받는 데는 그것이 미술관 한 곳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다.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현대에 이르는 작품들을 망라하는 이 컬렉션은 산탄데르은행재단의 미술관을 통해 스페인과 그 외 여러 나라의 주요 미술관에 대여된다. 또한,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 전시로 더 많은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널리 확장되는 메세나의 길

산탄데르은행의 적극적인 메세나 활동은 스페인의 다른 기업들에 모범적인 사회공헌의 길을 제시했고 그 영향력은 갈수록 확장되고 있다. 스페인의 또 다른 은행인 BBVA는 스페인 예술상을 주관하며 문화예술 외 역사,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을 진행한다. 통신회사인 텔레포니카Telefónica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창작을 지원하는 텔레포니카재단을 운영하고 에너지기업인 엔데사Endesa는 환경 문제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석유와 가스회사인 레플Repsol은 예술,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자라ZARA를 비롯해 세계 의류 시장을 주도하는 패션 브랜드를 소유한 인디텍스Inditex는 예술과 환경을 연관 짓고, 이케아 스페인 역시 환경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처럼 스페인의 기업들은 기술과 환경 같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문화예술로 이해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스페인 국민이 함께 생각하고 동참할 기회를 늘려 가고 있다.


올리브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스페인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은 수많은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고무하며 예술 생태계에 자양분을 공급한다. 이는 현재의 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결실을 생각하게 만든다. 메세나 활동이 기업 이미지 제고와 이익 추구가 아니라 순수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 보다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미션,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을 품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도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형



산탄데르금융시티에 있는
산탄데르은행재단의
미술관 ©Juan Baraja

태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하지만 미술계 지원이 아닌 '미술품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과거에는 상업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아트 펀드를 만들어서 작품을 다량으로 매입했던 예술가들과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다. 대기업이 미술품 판매를 수익 사업으로 삼아 미술 생태계에 혼란을 더하는 모습도 있다.

메세나는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정신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순수한 메세나 활동을 위해서는 올리브나무를 심는 마음이 필요하다. 올리브나무에 주는 물과 양분들이 가지를 뻗게 하는 모습을 기대해야 한다. 그 나무에서 이파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 미래의 양식이 되고 신선한 그늘과 공기를 세상에 선물하도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날을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을 산탄데르에서 배웠으면 한다. 

VIETNAM

베트남 미술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까지

베트남 주요 기업들의 메세나

베트남 미술계가 글로벌 미술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거장들과 신진 작가들이 나란히 성과를 내는 중이다.

그 배경에는 베트남 정부의 경제사회 개방정책 '도이머이'와 더불어,
민간기업의 활발한 문화예술 후원이 있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대기업 빈그룹을 필두로, 다수의 기업들이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여러 장르를 향한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글·사진 강리나 문화예술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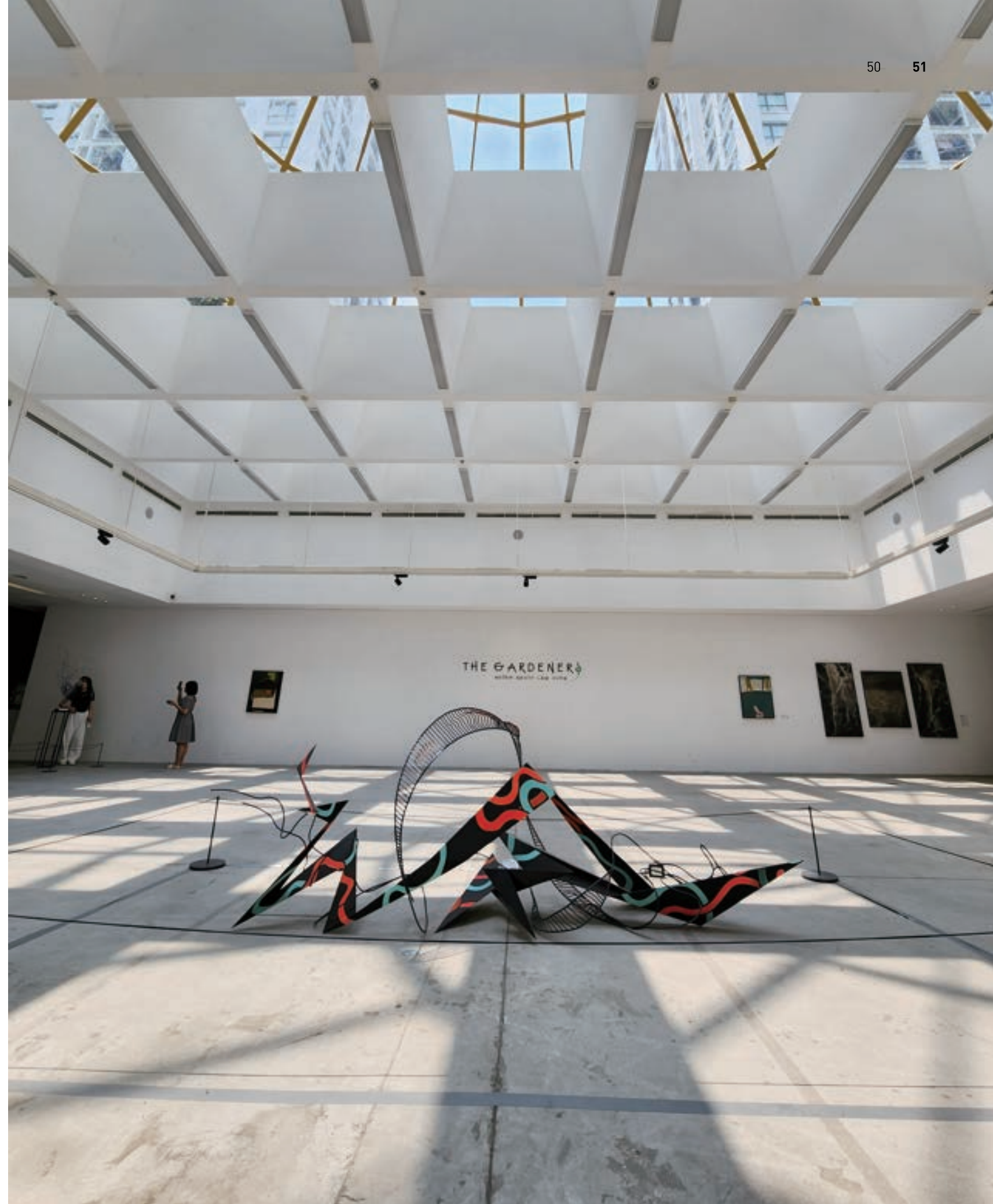
베트남 미술계의 눈부신 약진

베트남 미술계가 글로벌 미술시장에서 한 획을 그은 것은 작년 봄이었다. 세계적인 경매회사 소더비가 홍콩에서 주최한 모던 이브닝 세일 Modern Evening Sale에서 레 포 Lé Phó의 작품 <정원의 인물 Figures in a Garden>이 베트남 미술 작품 역대 두 번째 낙찰가를 기록했다. 몇 달 뒤 소더비가 베트남에서 최초로 전시회를 열자 콜렉터들과 언론은 더 크게 환호했다. 그 동안 베트남에서 개최되었던 인도차이나 미술 전시회 중 가장 큰 행사였을 뿐 아니라, 레 포, 마이 쥘트 Mai Trung Thứ, 부 까오 담 Vũ Cao Đàm, 레 티 류 Lê Thị Lưu 등 베트남 회화 거장들의 작품이 소더비의 테이블 위에서 전 세계에 선보인 기념비적 순간이었다.

소더비의 동남아시아 지역 디렉터 자스민 프라세티오 Jasmine Prasctio는 베트남을 '문화의 원천이자, 예술 탐구 및 컬렉션 확장에 열정적인 콜렉터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의했다. 근 2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 거래가 약 20퍼센트 감소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근 베트남 미술계의 약진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도이머이Đổi Mới가 견어올린 장막

베트남 정부가 1986년 경제·사회 개방 정책 '도이머이'를 채택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변화가 빠르게 시작되었다. 미술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듬해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지도와 경영을 쇄신하고 강화하며 문학, 예술, 문화 부문의 창조력을 발전시킨다’라는 결의안을 통해 문화예술계의 도이머이를 공표했다. 이어서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고립에서 개방으로, 억압에서 창조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도이머이 이전, 1970~80년대의 인기있는 작품이 주로 호치민의 초상화나 프로파간다 포스터, 농촌 풍경화 등이었다면, 그 이후 1990년대의 작품들은 독창성과 자유로운 표현, 다양한 감정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룬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검열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예술가들은 다채로운 상상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작품에 새로운 관점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작품 활동이 주로 실내에서 초청된 손님에게만 공개되었던 반면, 1990년대에 들어서며 공공 장소의 미술이 대대적으로 장려되고 대중과 예술의 만남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빈그룹 Vin group의 전폭적인 지지

빈그룹은 명실공히 베트남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 설립자이자 회장인 팜 낫 부옹 Pham Nhật Vương은 2023년 현재 순자산 42억 달러를 보유한 베트남 최고 부호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룹은 초기 사업영역이었던 부동산과 리조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이후 리테일, 학교, 의료,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업계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대기업 빈그룹이 운영하는 비영리 아트센터 VCCA



빈그룹이 베트남 미술계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무엇보다 2017년 전액 투자로 설립 후 운영해오고 있는 비영리 아트센터 VCCA Vincom Center for Contemporary Art 일 것이다. VCCA는 지난 6년에 걸쳐 하노이, 아니 베트남 북부지역을 통틀어 가장 규모있고 신뢰받는 예술기관으로 자리잡았다. 빈그룹 소유의 대형 쇼핑몰 ‘로열시티 빈컴센터’의 지하 1층, 각종 카페와 레스토랑, 바쁜 움직임과 소음으로 가득찬 이곳 한 켠에 위치해 대중에게 문화적 오아시스를 선사한다.

약 4,000제곱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공간에 조성된 VCCA의 한가운데는 유리지붕으로 덮여있어 낮에는 마치 빛의 중정처럼 자연광이 쏟아져내린다. 문화, 예술, 감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이러한 여가활동을 SNS에 공유하기를 즐기는 베트남의 Z세대들에게 VCCA는 단연 가장 힙한 주말코스 중 한 곳이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미술관

VCCA의 설립 이전까지 베트남의 미술계에는 두 가지 주요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 프랑스문화원,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 일본 재단같이 해외 기관의 보조금으로 활동하는, 서구의 가치를 강하게 반영하는 예술가 그룹이다. 또 하나는 공공 문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대중적 색채가 강한 예술가들이 이끄는 움직임이었다. VCCA는 이 두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대중들에게 소개하며 예술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 오고 있다.

VCCA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메시지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여야 하며, 예술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통합하고 치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신념이다. 대중에게 예술을 소개하고, 국내외 예술가들을 연결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교육 및 워크숍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설립된 이곳은 시각예술, 조각, 설치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을 포함한 예술활동을 아우른다. 전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3개월 단위로 교체되는데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자주 소개되고, 전통 회화재료인 실크나 조 종이 Dó paper에 현대적인 소재나 표현을 접목한 실험적인 시도들이 자주 눈에 띈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1년 11월, 빈그룹 소유의 빈펄리조트 Vinpearl Resort는 VCCA와 함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푸꾸옥 유나이티드 센터 아트 레지던시 Phu Quoc United Center Art Residency’를 시작했다. 25명의 예술가들은 베트남 남부의 아름다운 휴양지로 잘 알려진 푸꾸옥 섬의 빈펄리조트에서 보름간 지내며 회화, 조각, 설치미술, 공예 등을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40여 점 창조했고, 온오프라인 전시회에 참여했다. 어려운 시기에 푸꾸옥의 바다, 자연, 사람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통해 섬의 관광 홍보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감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기획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계와 대중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향후 빈그룹이 추구할 메세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화예술과 전통의 가치를 확산하는 기업들

작년 10월, 빈그룹은 자사의 혁신기금재단을 통해 360만 달러의 연구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빈그룹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기금으로, 그 동안 과학 기술부분의 연구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문화역사 프로젝트까지 후원을 확장

해 문화 및 역사적 가치 보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2년 동안 이 기금은 문화역사부문에서 대사관, 연구기관, 대학교, 아카이브센터, 박물관, 갤러리 등의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관광과 관련된 전통 공예의 보존 및 개발’ 같은 5개의 문화 프로젝트를 후원하기로 되어있다. 그 외 민속문학, 민속공연예술, 전통축제, 전통공예, 문화유산, 명승지, 유물, 골동품 등을 비롯한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포함하며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진흥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미술계가 큰 성과를 거둔 데는 빈 그룹의 역할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2018년에는 퍼시픽 그룹 Pacific Group이 500여 점에 이르는 베트남 미술품을 해외 컬렉터들로부터 구매해 대대적인 미술품 송환을 전개했다.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베트남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 시도였다. 미술랭 가이드는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개발분야의 대기업인 선그룹 Sun Group과 손잡고 하노이와 호치민을 안내하는 여행 가이드와 미술랭 인증 레스토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점점 더 활발해지는 기업들의 투자와 메세나는 베트남 문화예술의 저력을 키우고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수준 높은 작품과 국내외 예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VCCA의 전시

새로운 발레 영재 선발의 순간

KT&G장학재단 | 발레STP협동조합

글 김세연 한국메세나협회 A&B팀 선임

“너무 떨려요.”

솔로 작품 심사를 앞둔 김보경 양이 두 손을 꼭 모으고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심사위원들 앞에 서니 언제 그랬나 하는 듯 음악에 맞춰 다채로운 표정을 지어 보인다. 한 발 한 발, 지원자 모두가 긴장했던 현장 오디션이 끝나고 8명의 새로운 발레 영재들이 KT&G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지난 3월 7일, KT&G장학재단은 한국메세나협회, 발레STP협동조합, 강동문화재단과 업무제휴를 맺으며 올해 장학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10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발레 영재를 선발하는 오디션에 지원했다. 4월 22일, 강동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오디션에는 1차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22명이 참가했다. 바&센터Bar&Center 심사에서는 각양각색 레오타드를 입은 학생들이 모두 모여 지도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학생들의 눈은 선생님을 향하고 귀는 피아노 반주를 따라갔다. 심사위원들은 따뜻하지만 날카롭게 학생들의 동작을 살폈다.

발레 프로그램 총감독이자 심사위원인 김인희 감독은 “오늘 오디션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수고했어요. 다음 솔로 작품 준비 잘 하고 너무 떨지 마세요. 장학생으로 선발이 안 된다고 해도 앞으로 발레를 하는 데 오늘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테니 자부심 갖기를 바랍니다.”라며 학생들에게 애정이 담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솔로 작품 심사 종료 후 김인희, 문훈숙, 강예나 세 명의 심사위원은 깊은 논의 끝에 최종 장학생들을 결정했다. 심사위원들은 긴 시간 진행된 심사였음에도 발레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늘 즐거운 일이라는 소감을 밝히며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KT&G장학재단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연간 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발레 클래스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는 마스터 클래스에서 루카 마살라 모나코왕립발레학교 교장을 비롯한 유수의 발레 마스터들이 장학생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1



2

1 2023 발레 장학생 선발 오디션에 참가한 학생들
2 치열했던 오디션을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된 김보경 양

봄 햇살처럼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

아주IB투자, (주)면사랑 |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글 김지훈 한국메세나협회 A&B팀 매니저

봄에는 꽃과 관련한 축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만큼이나 다채로운 매력으로 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음악 축제가 열렸다.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이하 SSF)이다.

SSF는 잘츠부르크 음악제, 브레겐츠 페스티벌, 에든버러 페스티벌, 아비뇽 페스티벌 등의 사례와 같이 문화 친화적 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 축제이다. ‘음악을 통한 우정’을 모토로 2006년에 시작되어 실내악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18회를 맞이한 SSF는 ‘다다익선: The More, The Merrier’를 주제로, 2중주부터 4중주까지 구성되는 기존 프레임을 벗어나 8중주까지 확대해 대규모 실내악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최근 해외 교류의 규제 및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 음악가들을 새롭게 초빙했으며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대니 구, 문지영, 박규희, 문태국, 양정윤, 한수진 등의 출연으로 폭넓은 표현의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공연과 별개로 해마다 축제 팬들의 또다른 관심사가 되는 SSF 포스터에는 백남준의 <광합성>이 자리했다. 이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던 지난 3년을 뒤로하고 이제는 따스한 햇볕 속에서 마음껏 숨쉴 수 있는 2023년의 엔데믹과도 그 뜻이 통한다. 축제의 타이틀에 등장하는 ‘다다익선’이라는 단어는 백남준의 유명한 작품명이기도 하다.

SSF는 2010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의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으로 꾸준히 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는 아주IB투자와 면·소스전문기업 (주)면사랑이 축제를 후원했다. 매해 SSF에 참여한 음악애호가에서 축제의 후원인이 된 정세장 (주)면사랑 대표는 “아름답고 훌륭한 음악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배움과 감동을 만끽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봄을 맞이하고 즐기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SSF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더 많은 관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새로운 봄의 매력을 선사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1



2

1 2 4월 26일에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열린 SSF 개막공연 <6중주 광파레>

2023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

종근당 | 아트스페이스 휴

글 김세연 한국메세나협회 A&B팀 선임

2023년 종근당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로 국동완, 박미라, 한지형 3인이 선정되었다. 종근당은 3월 6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을 갖고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되어 올해의 작가뿐 아니라 역대 선정 작가들도 참석해 그간의 근황과 활동을 공유하는 반가운 자리였다.

올해 선발된 작가들은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진지하게 구축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동완 작가는 평면 회화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으며, 박미라 작가는 독창적인 화면 구성과 표현법으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진지하게 구축하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한지형 작가는 기하학적 구도와 추상적인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무정형의 이미지를 자신만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태영 종근당홀딩스 대표는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 집중해 향후 한국 미술계에 더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종근당 예술지상이 신진작가들과 문화예술계를 이어주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작가 간 교류 프로그램, 전시회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작가 워크숍을 재개해 작가의 작업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근당 예술지상은 성장 가능성이 큰 신진 작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창작 환경을 마련하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마련되었다. 선정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000만 원의 창작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한국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으로 인연을 맺은 종근당과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6명의 작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미술계 전문가들의 두 차례 비공개 심사를 거쳐 세 명을 선정하며, 회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의 신진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



① 2023년 종근당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 기념 촬영
 ② 역대 선정 작가들도 참석해 근황과 활동을 공유했던 증서 수여식
 ③ 선정 소감을 전하는 국동완 작가



포항·광양 지역 아동 1,200여 명과 함께해 온 ‘포스코 1%나눔 아트스쿨’이 올해로 5년차가 되었다. 포스코 임직원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예술교육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까지 이어가는데, 이렇게 확장되는 구조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기업의 가치체제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 2월 22일과 24일에는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전시회 및 발표회가 백운아트홀(광양)과 효자아트홀(포항)에서 열렸다. ‘꿈을 그린Green 우리 지역 예술가’라는 타이틀과 함께 환경과 문화예술의 접점을 탐구한 결과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시회에 참여한 아동들의 작품은 환경의 소중함, 산·바다·동식물의 아름다움, 어린이의 꿈과 희망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었다. 평면 작품, 입체조형물, 영상물 등 표현 방식도 폭넓어서 관람객에게 감상하는 재미를 선사했다. 업사이클링 악기나 공예품 등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면서 만들어낸 활동 결과물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포스코 임직원 재능봉사단의 체험존 운영과 축하공연으로 현장은 한층 더 활기가 넘쳤다.

사업에 꾸준히 참여해 온 이미영 동해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 자체 예산으로 엄두를 낼 수 없는 예술교육을 전문 강사까지 지원받아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라며 “아이들이 악기 교육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매년 연말에 요양시설 등을 찾아가 공연하면서 더욱 보람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무대에서 가야금 연주 실력을 멋지게 보여준 중학생 정아정 양은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가야금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가야금 소리가 너무 예뻐서 앞으로도 계속 연주하고 싶다.”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포스코1%나눔재단과 한국메세나협회가 추진하는 문화공헌 사업은 예술을 모든 교육의 원천으로 보고 아동들이 다양한 예술을 배워 실질적인 행동에 동참하는 과정까지 지향한다. ‘포스코 1%나눔 아트스쿨’은 2019년부터 이어온 4년 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전환점을 맞이하며 예술교육 구성의 변화를 모색해 교육의 장을 넓히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 여정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시 새롭게, 미래의 예술을 향하다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글 박선현 한국메세나협회 문화사업팀 선임

드림그림 12년,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지난 2월 21일, 미술영재 장학사업 ‘드림그림Dream Greem’의 발대식이 상황리에 종료되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발대식은 ‘Arts and Artists with NEW Dream Greem’이라는 2023 드림그림의 슬로건을 선포하고 드림그림의 리뉴얼을 선언한 자리였다. 새 슬로건은 장학생에게는 미래를 향한 꿈을, 멘토에게는 창작의 꿈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넓히고 아티스트로서 한발 더 다가설 실질적인 환경을 지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12기의 출범을 알린 올해 발대식은 11기 졸업식과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울프 아우스포롱 한성자동차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2 졸업증서와 2023 장학증서 수여가 진행되고 신규 멘토 및 멤버서더 소개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전한 임다솔 학생은 “드림그림을 통해 새로운 작업을 접할 때마다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 멘토링 수업은 막막했던 저에게 삶의 길잡이와도 같았다.”라며 “함께 성장통을 겪은 드림그림 친구들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과 격려를 보내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와 사랑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훌륭한 예술가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 ① 2023 발대식 행사장 포토존에서 한성자동차 CEO와 드림그림 장학생 및 멘토 단체 사진
- ② 양민하 작가의 아티스트 멘토링 현장.
- ③ 장학생이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아트를 구현해보고 있다.
- ④ 2023 조형아트서울의 드림그림 부스 미디어월에는 관람객의 움직임을 감지해 반응하는 미디어아트가 전시되었다.
- ⑤ 드림그림 장학생 40명의 개별 작품이 전시된 2023 조형아트서울 현장



인공지능과 함께 그려나간 꿈

드림그림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예술계 트렌드를 발 빠르게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코엑스에서 개최된 조형아트서울PLAS에서 인공지능과 협업한 미디어아트 전시 《Waves of Dreams꿈의 물결》을 선보였다. 주제에 따라 학생들의 무궁무진한 꿈이 인공지능, 양민하 작가, 관객들을 만나 더욱 큰 물결을 만들어 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글로벌 미디어아티스트 양민하와 드림그림 장학생들이 함께 완성한 미디어아트 작품 <10년 후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큰 주목을 받았다.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Interaction’이 작품의 주요 특징으로, 모션센서를 설치해 작품 앞에 선 관람객이 자신의 움직임에 따라 LED 속 아트웍이 반응하고 새로운 파장을 만들어 내는 이색적인 경험을 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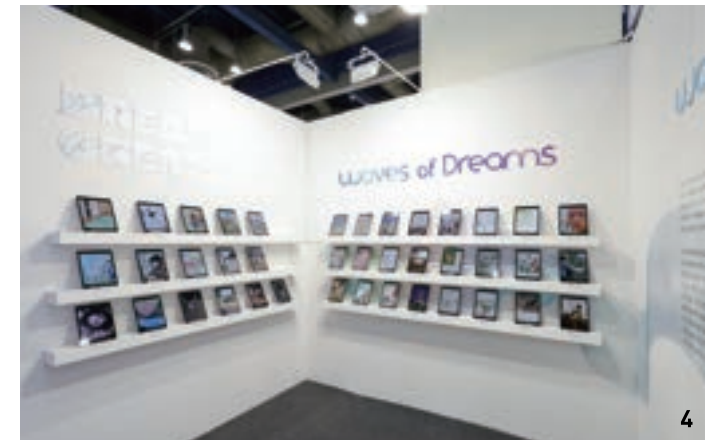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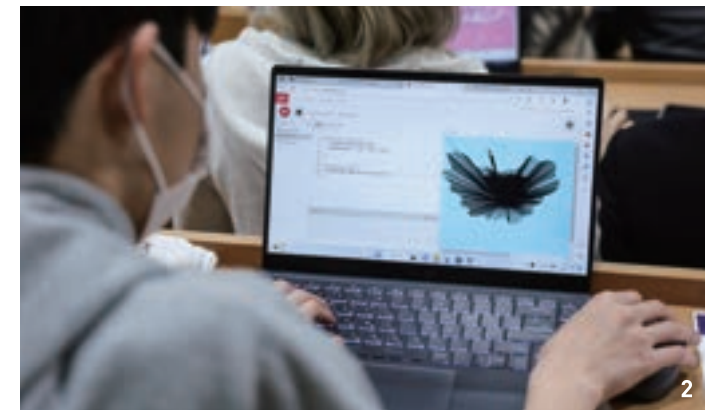
조형아트서울 참여에 앞서 드림그림 장학생들은 두 차례에 걸쳐 양민하 작가의 멘토링을 함께 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과의 협업 방법을 익힌 시간이었다. 장학생들은 대화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 GPTChat GPT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인공지능으로 달라질 미래를 상상하고, 인공지능 드로잉 프로그램인 달리 Dall-E와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활용해 새로운 미술 작업을 경험했다.

양민하 작가는 장학생들에게 ‘10년 후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장학생들은 이를 인공지능과 협력, 코딩을 통해 모션그래픽 아트웍을 창작했다. 멘토링에 참여한 김민성 장학생은 “인공지능을 처음 접할 때는 우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인공지능이 예술가들의 창작을 돕는 하나의 기술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깨달았고, 예술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앞으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흐름을 선도하고 대중과 소통하며

메타버스, 증강현실, NFT, 인공지능까지 드림그림은 변화를 이끌어 갈 미래 기술과 예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도전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한성자동차는 최신 미술계 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장학생들은 새로운 기술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예술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습득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12년 간 지속되어 온 드림그림은 2023년을 맞아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형아트서울 2023을 시작으로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SEOUL, 서울디자인페스티벌SDF 등 다수의 아트페어에 참가해 미술계의 새로운 동향을 탐구하고,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예술가를 꿈꾸는 멘토단에게는 저명한 선배 작가와 함께 하는 그룹전 개최까지 지원해 신진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동시대 작가 혹은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강연도 제공해 생생한 미술계 현장 이야기와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

협회 뉴스

뮤지엄한미에서 진행된 A&B 포럼

한국메세나협회는 4월 6일, 2023년 첫 A&B 포럼을 뮤지엄한미 삼청에서 진행했다. A&B 포럼은 기업 메세나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메세나 실무 책임자들의 문화예술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 모임이다. 이날 포럼에는 20여 개 기업 및 기업출연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미사진미술관이 걸어온 길과 뮤지엄한미가 나아가야 할 길을 소개하는 손영주 뮤지엄한미 학예실장의 발표 이후 참석자들은 뮤지엄한미 삼청의 개관전시 《한국사진사 인사이드 아웃 1929-1982》을 관람했다. 국내 최초 사진전인 정해창의 《예술사진 개인 전람회, 1929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첫 사진전인 《임응식 회고전, 1982년》까지 두 역사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한국사진사를 아우른 전시다.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수장고 탐방이었다. 사진의 노화를 막기 위해 국내 최초 저온 및 냉동 수장고를 함께 갖춘 시설로, 개관전과는 별도로



로 '보이는 수장고'를 통해 일부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김선영 뮤지엄한미 학예연구관은 “대중과의 긴밀한 소통을 추구하는 뮤지엄의 상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공연 관람 기회 더한 문화접대비 설명회

한국메세나협회는 5월 19일, LG아트센터 서울 스튜디오에서 '기업인 초청 문화접대비 활용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6년째 추진 중인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 내 문화접대 유관 부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화접대의 긍정적 효과 및 사례, 실질적인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협회가 인터파크와 함께 제작한 문화예매권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하면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한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도 안내했다. 이를 통해 기업 문화접대비와의 일대일 매칭으로 협회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는 해당 제도의 변천 과정 및 활용 방안, 문화접대비가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가 견해를 덧붙였다. 또한,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문화접대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LG아트센터 기획공연 《스노우쇼》 관람을 함께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 QR 코드로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문화접대비 관련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협회 뉴스

전율의 무대를 선사한 《메세나 콘서트》


양성원(첼로)을 주축으로 송지원·임지영(바이올린), 김상진(비올라), 박재홍(피아노)이 5월 24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무대에 올랐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우승자부터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까지,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 관객석에서는 연주자들이 현을 긁기도 전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1부는 드보르자크Dvořák의 레퍼토리로 채워졌다. 체코의 무명 작곡가를 유럽 전역에 알린 <슬라브 무곡>을 시작으로 피아노 3중주 <뚝키>가 이어졌다. 연주자들은 작곡가 특유의 민족적 감성을 살리며 호소력 짙은 앙상블로 극적인 전개를 이끌었다. 1부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2부는 두 명의 연주자가 합류해 엘가Elgar의 피아노 5중주를 연주하며 풍성함을 더했다. 세대를 뛰어넘는 다섯 연주자의 호흡은 가히 감탄을 자아냈다. 각각의 악기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두터



운 화음을 쌓아가며 입체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이번 《메세나 콘서트》는 'K클래식 최고의 연주자들을 만나다'를 부제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나누고자 마련되었다.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및 협력사를 비롯해 예술지원 기업의 임직원과 가족 430여 명이 참석했다.

‘2023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가	기업
전희경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안상훈	벽산엔지니어링
정정주	CJ문화재단
김남두	TYM
김미영	바텍
차영석	현대백화점
신건우	한미약품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은 타 장 르보다 시각예술 분야의 메세나 활동 이 미비한 실정을 고려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메세나 사업이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협력해 심의를 거쳐 선정된 차 세대 유망 작가를 대상으로 기업의 후원을 연계하고, 기업은 후원 작가에게 3년간 창작금을 지원한다. 또한 작가는 창작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작가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7개의 기업이 7명의 작가와 인연을 맺고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창작금을 비롯한 작품 구매, 도록 발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후원이 진행된다. 미술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 작가 지원을 위해 2023년에도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새로운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명
한국메세나협회 '1기업 1미술작가 지원사업'

지원대상
문화예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유망작가

지원 내용
- (기본) 지원 사항: 매년 최소 창작금 500만 원씩 3년간 지원
- (선택) 지원 사항: 기업이 작가의 작품을 구매해 소장하는 형태로 추가지원 가능

지원 기업 Benefit
- 후원식 개최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2023년 기획 전시에 후원 기업명 표기
- 메세나 활동 언론홍보 협력

신청기간 및 사업문의
6월 ~ 8월
김세연 한국메세나협회 A&B팀 선임 02-786-9657 / sykim@mecenat.or.kr

회원사 뉴스

한미약품,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개최

한미약품이 현직 의사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이하 MPO)와 함께 지난 2월 25일 광림아트센터에서 《제9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했다.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된 공연으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은 3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더사랑복지센터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들이 오프닝 무대를 열었다. 이어 MPO가 모차르트, 베토벤, 아렌스키, 그리그 등의 작품을 연주하며 열띤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박민중 MPO 단장(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희망 기금을 통해 성장한 아이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기쁘고, 이 아이들과 무대에 함께 설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콘서트로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은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새로운 꿈을 갖고 번



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적 예술교육 지원에 한미가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조성된 '빛의소리 희망기금'은 더사랑복지센터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된다.

뮤지엄한미, 2023년 해외작가 기획전 《DEAR FOLKS》

뮤지엄한미 삼청 본관에서는 2023년 해외작가 기획전으로 지난해 9월에 작고한 윌리엄 클라인William Klein, 1926~2022의 《DEAR FOLKS》가 열리고 있다. 《DEAR FOLKS》는 도발과 위반으로 20세기 시각예술의 새 흐름을 선도한 윌리엄 클라인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고전이자 작가의 첫 유고전이다. 작가는 현대 사진을 비롯한 현대 영상미학의 시발점에 선 예술가로 회화, 디자인, 사진, 패션, 영화, 책 등 다양한 분야를 중횡 무진하며 규칙과 금기, 한계를 없앴다. 이번 전시는 그의 작업 경력에 가장 핵심이 되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의 작품 130여 점과 자료 40여 점을 8개 섹션에 걸쳐 소개해 전방위 예술가로서의 진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전시 기획 과정 전반에 뮤지엄한미와 공동기획으로 참여한 객원 큐레이터 라파엘 스토핀과 윌리엄 클라인 스튜디오의 총괄 매니저 피에르-루이 드니, 김선영 뮤지엄한미 학예연구관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해외 인사 초청 강연 및 작가와의 만남 등이 준비되어 있다. 전시는 9월 17일까지.



회원사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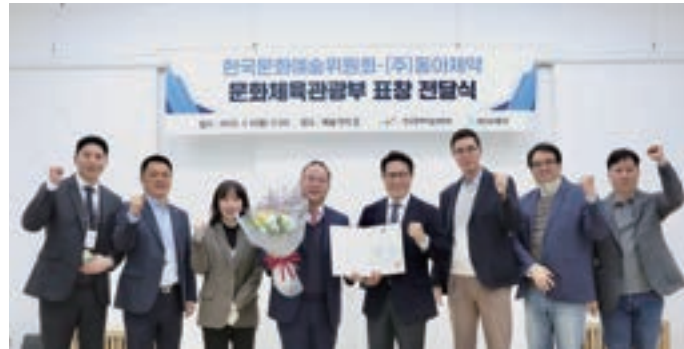
동아제약, 한국문학 발전 유공으로 문체부장관 표창

동아제약이 우리나라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동아제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을 40년 간 지속적으로 후원함으로써, 국내 문학의 저변 확대와 여성 문인 발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여성 백일장으로, 문학에 관심 있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당일 제시되는 글제에 따라 시, 산문, 아동문학(동시, 동화) 분야의 우수 작품을 선발하는 글짓기 대회로, 현재까지 1,000명 이상의 여성 문인을 발굴했다.

지난해에는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근 5개년 주요 수상작 모음집 『마음 울적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를 출간해 백일장의 의미를 더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에 많은 관심을 주신 여성 문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문화와 예술 분야에 끊임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 국내 문학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림푸스한국, 《고잉 온 콘서트》 개최

암 경험자와 그 가족들이 《고잉 온 콘서트》를 위해 3월 2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찾았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관람객들이 모여 ‘아름다운 삶은 계속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진심 어린 무대에 울고 웃었다.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한 것에 착안해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이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고잉 온 콘서트》는 한국메세나협회가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일환으로 올림푸스한국과 세종문화회관이 함께 마련한 콘서트이다. 2018년 《올림#콘서트》로 시작된 이래, 암 경험자와 가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전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은 서희태 지휘자를 필두로 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양정윤, 소프라노 강혜정, 뮤지컬배우 마이클 리가 출연해 따뜻한 하모니를 선보였다. 모두의 아름다운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Going On) 앞으로 《고잉 온 콘서트》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회원사 뉴스

노루그룹, ‘2023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호평

4월 17일부터 23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된 ‘2023 밀라노 디자인 위크(Milan Design Week)’에서 노루그룹이 자사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전시 《미라지|Mirage, 신기루》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세계 최대 디자인·가구 박람회로 170여 개국에서 40만 명 이상이 찾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밀집한 밀라노 토르토나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4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행사였다. 《미라지》 전시는 노루그룹의 이태리 현지 디자인&컨설팅 전문 계열사인 NMDSNOROO Milan Design Studio가 총괄하고 폴란드의 유망 작가팀 ‘Uau Project’가 참여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전시 테마인 ‘신기루’를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주는 자연 현상으로 재정의하고, 전시장을 복잡하고 힘든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현대인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컬러와 빛을 강조하며 공간 디자인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준 《미라지》 전시장에는 만 명 이상의 현지 관람객이 찾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동 전시는 세계적인 건축&인테리어 매거진 《DEZEEN》과 《INTERN&DECO》에 소개되었으며, 현지 일간지 《Ilgiornale》 및 주요 언론이 ‘토르토나 지구에서 가장 불만한 전시’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리움미술관

리움미술관은 4월 17일,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9개 기관의 청각 장애인, 발달장애인, 어르신 등 300여 명을 초청해 미술관 관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은 미술관 휴관일인 월요일로, 참여자들은 더욱 쾌적한 분위기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다.

초청행사는 마우리치오 카텔란 《WE》와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의 큐레이터가 전시를 설명하고, 수어통역과 전문 속기사의 문자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 서면 자동으로 설명이 재생되는 ‘디지털 가이드’를 활용해 미술관의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했다.

이후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비장애 예술인 20명과 함께 ‘WE_the more WE’를 진행했다. 전시를 관람하고 작품을 자신만의 드로잉으로 재해석해 표현해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서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혼자서는 외출도 어려운데 오랜만에 활력이 되는 하루였다.”라며 “진귀한 백자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놀라웠고, 전시장에 설치



된 카텔란의 유명한 작품을 미리 큐레이터 설명을 듣고 직접 마주하니 더욱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어 특별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회원사 뉴스

템퍼코리아, 류시은 작가 『나의 최애에게』 출간

템퍼코리아가 후원하는 ‘첫 책 지원 공모’ 사업의 2022년도 선정작가, 류시은의 소설집이 출간되었다. ‘첫 책 지원 공모’ 사업은 문학 분야 작가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템퍼코리아와 은행나무출판사, 한국메세나협회가 협약을 맺고 기획한 작가 창작 지원 프로그램이다. 젊은 문학인에게 창작금 1,000만 원과 첫 책을 출판할 기회를 제공한다.

2019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나나』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류시은 작가는 이번사업을 통해 단편소설 『나의 최애에게』 외 작품 7편을 묶어 소설집을 출간했다. 『나의 최애에게』는 타인을 향한 감정적 사건 사고에 관한 이야기로, 발신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는 사랑,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랑, 내가 있어 버린 사랑이자 내가 모르는 사랑 등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상은 나쁘게 돌아가지만 인간의 기본을 지키며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인물의 이야기에 흡인력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작가는 “흙 속에 뿌리 내린 시간만큼 성숙하고 재밌는 소설을 쓰겠다.”라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두산인문극장,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Age’를 주제로 한 두산인문극장 2023 마지막 공연, 연극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가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두산아트센터 Space111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인류세의 위기에 대해 SF적인 상상력과 암울한 전망을 함께 풀어낸 작품이다.

40일간 이어진 화재로 전 세계가 불타고 있다. 동물과 식물, 인간 종족을 대피시키기 위해 여덟대의 배가 바다로 출항하지만, 모든 종자가 그 선택을 받을 수 없기에 탑승객들은 생존을 위한 경기를 치른다. 이를 바라보는 관객들은 ‘인류는 공존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1년 백상예술대상 젊은연극상을 수상한 정진세가 극작과 연출을 맡는다. 매주 일요일 공연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두산인문극장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사회학적·인문학적·예술적 상상력이 만나는 자리다. 2013년 ‘빅 히스토리’를 시작으로 ‘불신시대’ ‘예외’ ‘모험’ ‘갈등’ ‘이타주의자’ ‘아파트’ ‘푸드’ ‘공정’까지 매년 다양한 주제로 진행해 왔다. 올해는 ‘Age, Age, Age 나이, 세대, 시대’를 주제로 나이를 생각하며 지혜를 모색하고자 한다. 그 지혜는 나이가 다른 이들이 서로 손을 잡는 것, 한 사람의 일생에 펼쳐진 매년의 나이를 일련의 호흡으로 어루만지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지난 강연 및 공연 영상은 두산아트센터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사 뉴스

SK그룹, 美 링컨센터 ‘썸머 포 더 시티’ 후원

SK그룹의 5개 회사(SK E&S, SKC, SK온, SK주식회사C&C, SK에코엔지니어링)가 미국 뉴욕시 링컨센터에서 주최하는 ‘썸머 포 더 시티(Lincoln Center's Summer for the City)’에 주요 후원사로 참여한다.

지난해 3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한 ‘썸머 포 더 시티’는 뉴욕시가 자랑하는 대규모 문화행사다. 올해는 전 세계 문화예술인 1천여 명이 참여해 200개 넘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소개하는 ‘코리아인 아트 위크(Korean Arts Week)’ 프로그램도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반영되었다.

이번 후원은 SK의 핵심 경영 전략인 ‘글로벌 스토리’를 대규모 문화행사에 적용하는 첫 사례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현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SK식 ‘글로벌 스토리’를 전파하고,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세계에 알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현지에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고, 공감을 얻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시각장애인이 펼치는 최초의 음악극

“중요한 건 중심을 잃지 않는 거야!”

듀엣곡 표절 시비에 휘말린 ‘아름’과 ‘지호’에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스티브 리’가 건넨 말이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은 이들은 사람들의 편견을 극복하고 국제음악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꿈의 무대에 오른다.

한빛예술단이 20년 동안 걸어온 길이 한계를 넘어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의 성장스토리에 고스란히 담겼다. 2003년 시각장애 음악인들의 자립을 위해 창단된 한빛예술단은 꾸준한 활동으로 국내 장애 음악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해왔다. 5월 9일 강동아트센터에서 초연한 《노래가 나를 데려가》는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장르이자 한빛예술단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신세계의 후원은 이번 공연에도 큰 힘이 됐다. 손영식 신세계 대표이사는 “부단한 노력으로 한계를 이겨내는 한빛예술단의 공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응원하겠다.”라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에 내디뎠던 20년 전의 첫걸음을 기억하며, 한빛예술단은 앞으로 만날 새로운 길에 한걸음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다. 



회원사 소개 (가나다순)

회장사	벽산엔지니어링				
부회장사	교보생명보험 노루홀딩스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삼양홀딩스 서울향료(주) 설원량문화재단	세아제강 유니드 종근당	코오롱그룹 크라온-해태제과 파라다이스문화재단	풍산그룹 한미약품 효성
이사사	고려당 금호문화재단 남이섬 (주)두산	사라 (주)신세계 이건홀딩스 일신문화재단	일신방직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성자동차	현대퓨처넷 CJ제일제당 KT LG연암문화재단	SK SUPEX추구협의회 Social Value위원회
회원사	가나아트갤러리 강원랜드 경남스틸 공간그룹 금융투자협회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고속 유스퀘어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타이어 나라삼양감속기 나우피플 남이섬교육문화그룹 네이버문화재단 노루비케미칼 노루오토코팅 노루페인트 뉴서울 컨트리클럽 뉴스킨 코리아 뉴욕제과 다진 대성산업가스 대신증권 대우건설 대창스틸 대한상공회의소 대한항공 주식회사 더성도 돌살나이 동서식품 동성케미컬 동아제약 동아출판 동일FnG 두산연강재단 두산중공업 로얄&컴퍼니 롯데렌터카	롯데문화재단 롯데백화점 마케팅규레이터 그룹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트라이프사회공헌재단 (주)면사랑 모나미 문화유산국민신탁 미디어월 (주)버텍 베이글카페 보령제약 분아이에프 빌모트 건축사무소 한국지사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서울병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양인터내셔널 삼익문화재단 삼일회계법인 삼화에프앤에프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옥션 선명회계법인 세원특수금속 세일ENS 세화예술문화재단 송원문화재단 (주)수하패션 스파크인터내셔널	신라교역 신성씨에스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시아나HDT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항공 아이피케이 (주)에네스지 에스원 영무토건 영앤윌섬 주식회사 오리콤 오비맥주 주식회사 오성정보통신 올림푸스한국 우진 우진건설 원마운트 월드리츠개발주식회사 윈포시스 유안타증권 유중아트센터 이건산업 인산죽영 주식회사 인터파크 큐브릿지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일진문화재단 재단법인 송강재단 제우인베스트먼트 제일기획 조선호텔 종이문화재단 지알이파트너스자산운용주식회사 지앤히어링코리아 컨슈머타임스 케이옥션	코리아 투모로우 코리아리재보험 주식회사 코스모스약기 코카콜라음료 크레디아프로젝트 클라우드나인마케팅 태영건설 템퍼코리아유한회사 퍼시스 페르페티 반 멜 아시아퍼시픽 한국FPSB 한국공항공사 한국광고주협회 한국남동발전 한국무역협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암웨이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요타자동차 (주)한독 한맥도시개발 한미회계법인 한빛문화재단 한세실업 한솔케미칼 한진 한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햇빛담요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현대차 정몽구 재단 호텔롯데 호텔롯데 면세점	호텔신라 홈플러스 힐라코리아 휴맥스 BAT로스만스 BMW코리아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I동일 DL이앤씨 GA KOREA smart city & resort GS칼텍스 예울마루 GS칼텍스주식회사 HK HSD엔진 IBK기업은행 KBS교향악단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KH필룩스 KT&G LG생활건강 LG전자 LG화학 OCI POSCO SK건설 SK네트웍스 SK증권 SK텔레콤 SK해운 SM삼한기업 TCC스틸

회비 지원 (2022.12.12~2023.05.15)

감사드립니다



신규 입회

환영합니다



BAT로스만스

로스만스파이스트비브이는 글로벌 담배 제조·유통회사 BAT의 계열사로, 1902년 설립 이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잠재적 유해성 저감 제품

potentially reduced-risk products

을 제공하며 담배 시장에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내에는 영업소와 제조공장이 설립되어 던힐, 켄트, 네오 등의 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다국적 담배회사 중 최초로 경남 사천에 제조공장을 설립했다. 세계적인 지속가능 경영지수 평가지표 중 하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에 담배회사 최초로 2022년까지 20년 연속 선정되었다.



수하패션

수하패션은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골프웨어, 캐주얼, 아동복 등을 판매하는 패션 유통회사이다. 전국 백화점 및 평택프리미엄아울렛PPO 등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리바이스 등 스포츠 브랜드를 유통·판매하고 있다. 더불어 평택프리미엄아울렛에서 푸드코트, 문화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현대퓨처넷

현대퓨처넷은 고객의 디지털라이프를 개선하는 생활·문화·건강 ICT 플랫폼 기업이다. 30여 년간 축적한 서비스 노하우와 원천 기술 보유 리딩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 역량 내재화를 추구한다. 미디어로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디지털 기술 역량은 현대퓨처넷의 강점이다. 디스플레이 및 프로젝터 등을 통해 공공장소, 상업시설에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과 시각적 표현기법을 활용해 실제와 유사한 입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실감콘텐츠 전시 공간 서비스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투자를 진행한다.

한국메세나협회에 납부해주시는 회비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부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투자비로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